

언 어 학

제 19 호

1996년 12월

한국어 문장의 계층구조

노마 히데키[野間 秀樹]

한국언어학회

한국어 문장의 계층구조

노마 히데키[野間 秀樹]*

- 차 례 -

- | | |
|---------------------|------------------------------|
| 1. 들머리 | 5. 節의 내부구조 |
| 2. 언어의 단위와 modality | 6. 節의 계층구조 |
| 3. 主語와 述語 | 7. 문장 통합의 구조와 mood, modality |
| 4. 文章과 節 | 8. 마무리 |

1. 들머리

1.1. 본고의 목적

본고는 현대한국어의 문장구조(sentence structure)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어의 문장에는 계층(stratum)이 존재하고 있고, 그 계층들이 하나의 계층구조체(hierarchy)를 이루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그 계층구조는 문장의 命題(proposition)와 法性(modality)의¹⁾ 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자료

본고는 어떤 개념장치로서의 “이론”의 적용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국어의 언어사실 그 자체에 대한 고찰에 주된 목적이 있다. 본고의 방

언 어 학 제 19 호 (1996. 12. 30), 한국언어학회

* 동경외국어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1) modality의 번역 술어로서는 <양태>, <양상>, <서법성>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법성>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법론적인 입장은 한 마디로 언어사실에 입각한 <언어사실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소설, 희곡, 방송 script 등에서 수집한 13,889 개의 문장을 <기본자료>로서 사용하여, 계량적인 고찰은 모두 이 기본자료를 대상으로 삼되 필요에 따라 이 기본자료 이외의 용례도 사용하였다. 아울러 모어화자에 대한 조사를 병용하였다. 기본자료 선정의 원칙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시대한정의 원칙: 1980년대에서 1992년까지 발행된 동시대의 text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쓰인 시기와 발행시기가 떨어진 것은 피하였다. 공시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후대의 통시적인 연구까지 시야에 넣는다. 한 마디로 “현대한국어”라고 해도 개화기는 물론, 해방전의 한국어도 현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현대한국어(Contemporary Korean)라고 불리는 시대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것이다.

(2) 장소한정의 원칙: 한국에서 발행 및 방송된 것에 한정하였다. 북한이나 일본, 중국 등지에서 쓰인 것은 혼용하지 않는다.

(3) 방언한정의 원칙: 소위 표준어 내지는 서울방언으로 간주되는 text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외의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text는 피하였다.

(4) 장르(genre)한정의 원칙: 본고에서는 소설, 희곡, 방송 script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은, 언어사실은 text유형별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역사소설 등 시대배경이 다른 것도 채택을 하지 않았다. 물론 text의 유형별로 더 많은 조사를 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고찰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자료일람은 본고 말미에 붙였다. 용례의 출전은 약호로 표시한다. 출전표시가 없는 것은 作例이다.

2. 언어의 단위와 modality

2.1. 언어의 단위 속의 문장

언어활동의 단위로서 지금까지 텍스트(text)—발화(utterance)—문장(sentence)—단어 결합(word combination)—단어(word)—형태소(morpheme) 등이 거론되어 왔다. 이 중, 단어는 命名의 최소단위를 이루기는 하지만, 언어활동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최소

단위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은 그 자체로서 발화를 이루고 텍스트를 이룰 수 있다. 단어는 一語文의 경우에도 문장으로서의 성격을 띠어야 비로소 문장이 되고 발화가 될 수 있다. 모든 단어는 기본적으로 문장이라는 모습을 취하면서 발화 안에 現象한다. 단어는 문장이라는 문법적인 망(grammatical net) 안에 짜서 넣어짐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문장은 단어의 실천적인 존재양식이며 단어는 문장이라는 실천적인 존재양식에서 한 단계 추상화된 단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 문장의 성립조건과 modality

그러면 문장이 문장으로서 성립되는 조건은 무엇일까? “火災”를 뜻하는 “불”이라는 추상화된 단위로서의 단어와 “불.”이나 “불?”, “불!”이라는 실천적인 문장들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흔히 modus 혹은 진술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術語 문제는 어쨌든 간에, 문장에 dictum과 modus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은 많은 언어학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²⁾ 즉 문장은 단어나 단어결합으로 <사태> 그 자체를 명명하는 기능과 그러한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태를 나타내는 언어형식을 <명제>(proposition)라 부르고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를 <법성>(modality)이라고 부른다.³⁾ 그리고 modality에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측면, 즉 명제를 판단하는 <對事態 modality> (event-oriented modality)와, 聽者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측면, 즉 청자에게 작용하는 <對聽者 modality> (hearer-oriented modality)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장으로서의 “불.”이나 “불?”, “불!” 등은 사태를 명명함과 동시에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까지 담겨져 있다. 즉 명제와 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단어로서의 “불”은 그저 事象의 명명일 뿐, 화자의 태도는 담겨져 있지 않다. 즉 modality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事象의 명명>이란 事象의 斷片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어의 어휘적인 측면이다. 단어는 문장의 자격을 가지고 발화 안에 실현되면서 반드시 화자의 태도를 띠게 되며 문법의 망 안에 짜서 놓여진다. 이 문법망 안에 들어갈 때, 자신의 형태를 바꾸는 단어들도

2) dictum과 modus에 대해서는 Bally(1932;1965:36) 참조. 일본어문법에서는 야마다[山田孝雄](1936), 도키에다[時枝誠記](1941), 와타나베[渡邊實](1971)를 비롯하여 진술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3) Modality와 mood에 대해서는 Fillmore(1975), Vinogradov(1975), Lyons(1977), Bybee(1985), Bondarko(1984, 1991), Palmer (1986), 마스오카[益岡隆志](1991) 참조.

있고, 자신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 단어들도 있다. 단어 “불”은 “불은”, “불이”, “불을” 등으로 자기 자신 뒤에 다른 요소를 붙임으로써 자신의 형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예 중에서는 형태를 바꾸지 않았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태도의 표명일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거기에는 적어도 어떤 억양(intonation)이나 音的인 표정이 존재하였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화자의 태도는 때로는 뚜렷하게, 때로는 회미하게 투영되었을 것이다. 비록 一語文이라 하더라도,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문장의 內在的인 성격, 즉 modality라는 문법망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장은 항상 modality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문장의 계층구조를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시사를 준다.

2.3. 單語結合

단어와 단어의 결합체로서 단어결합(словосочетание)이라는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 단어결합은 Akademija Nauk SSSR(1982:13-82)에 보이는 것처럼, 주로 러시아문법에서 발달된 문법적인 개념으로, 영어문법에서 일컫는 “collocation”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소위 <관용구>와도 다른 것임을 우선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어를 배우다”라는 두 단어의 결합은, “내일부터 한국어를 배울까 해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 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등의 문장을 관찰해 보면, 단어 “배우다”의 형태는 바뀌어도 “한국어를”은 언제나 같은 격으로 단어 “배우다”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그 어느 문장 안에서도 “한국어를”과 “배우다”의 의미적인 상호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독립된 하나의 <事象의 명명>으로서의 기능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이 때 단어와 단어의 이러한 결합을 하나의 단위로 인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 단어결합이다.⁴⁾ 단어결합 역시

4) Jarceva(1990:469)에 있어서 Lopatina는 단어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종속적인 문법적 관계를 기초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실질적인 단어들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통사론적 구성체>. 러시아문법의 영향으로 단어결합론은 과학원(1963)을 비롯, 북한 문법에서 일찍이 도입된 바가 있다. 과학원(1962:863)에서는 단어결합을 <두 개 이상의 자립적 단어들이 문장론적 관계를 통하여 결합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 문법론을 계승한 최윤갑외(1984)에서는 단어결합을 <의미-문법적으로 연결되고 문장의 구성요소로 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단어결합의 이론을 한국어의 구체적인 문법형식 연구에 적용한 논고로서는 <예제>격의 분석인 韓南洙(1966)가 선구적인 업적이고, <-로/-으로>격에 관한 지무라[千村哲也](1987), 러시아문법의 성과를 도입하면서 2513개의 <-에서>격의 용례를 분석한 趙義成(1994), 3285개의 <-로/-으로>격의 용례를 분석한 陳滿理子(1996a,b)가 있다. 남기심(1993)에서도 단어결합론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노마[野間秀樹](1993a)는 3044개의 <-를/-을>격과 타동사의

화자의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또 일정한 억양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단어와 껀을 같이한다.

단어결합이 事象의 명명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어휘적인 의미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동사 “먹다”의 어휘적인 의미>라고 흔히 논의되지만, “비빔밥을 먹다”나 “약을 먹다”처럼, 구체성이 강한 명사가 <-를/-을>격에 오는 경우에는 동사 “먹다”는 타동성이 강한 동작을 나타내지만, “접을 먹다”, “쇼크를 먹다”, “더위를 먹다”, “나이를 먹다” 등등, 추상적인 명사를 <-를>격에 취하면 주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⁵⁾ 이러한 모든 가능성의 총체가 바로 추상화된 <동사 “먹다”의 어휘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 이외에는 일반적인 <동사 “먹다”의 어휘적인 의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단지 각각의 구체적인 단어결합 안에서 또는 문장 안에서의 어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용언, 특히 타동사의 구체적인 의미는 단어결합 안에서 비로소 선명해진다는 경향이 있다.

3. 主語와 述語

3.1. 주어의 임의성과 술어

한국어의 문장의 核은 述語(predicate)이다. 주어(subject)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장 성분이 필요에 따라 핵인 이 술어에 수반된다. 영어나 독일어 등 <주어+술어>라는 구조가 필수적인 언어와는 이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벽시계를 보았다. 8시 10분 전이었다. 오늘 아침에도 5시 기상! 마루방 청소를 했고 일조점호 뒤에 애국가를 불렀지. 또 운동을 했다. <신발/297>

● 「미안해요. 하지만 저녁은 다 해 났어요. 갖다 드릴까요?」
「필요 없어. 먹고 싶지 않아. 아니 이 재떨인 왜 안 비워 났어? 이런 건 깨끗이 좀 해 놓으면 재떨이가 닳아?」
「미안해요. 깜박 잊었어요. 지금 비울게요.」 <군것/26>

결합에 관한 논고이다. 단어결합론의 이론적인 면에 대해서는 趙義成(1996)을 참조.

5) 노마[野間秀樹](1993a:96)의 調査에서는 “먹다” 앞에 추상명사, 활동명사 등 추상적인 명사를 택하는 예가 구체적인 명사를 택하는 예보다 훨씬 많았다.

위에 든 예는 한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문장들이다. 하나는 地文, 하나는 會話文이다. 위의 15개 문장 중에 주어로 간주되는 문장성분은 두 번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어이다. 이러한 문장을 보고 “그리고 여인은 벽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8시 10분 전이었다.” 혹은 “제가 미안해요. 허지만 저녁은 제가 다 해 놔어요. 제가 갖다 드릴까요?”, “나는 필요없어. 나는 먹고 싶지 않아.” 등등으로 제멋대로 “주어”를 상정하려는 태도는 언어학자의 억지라고 해야 한다. 이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주어가 없는 문장의 대부분은 대체로 주어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으므로 주어가 원래 그 자리에는 없었던 것이다. 원래 있었던 것을 없앴을 때에만 우리는 “생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원래 없었던 요소를 억지로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낼 필요도 없고, “심층”에 가상하려는 관념적인 조작도 할 필요가 없다. 주어는 필요할 때만 쓴다 - 이것이 한국어 문장에 內在하는 성격이다.

<주어>는 어디까지나 문장성분을 논의하는 平面(plane)⁶⁾에서의 術語이지 의미론적인 평면의 術語인 <주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도 여기서 아울러 지적해 둔다.

3.2. 述語文과 非述語文

述語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의 문장은 술어로 통합(integrate)되어 있는 <술어문>과 술어로 통합되어 있지 않는 <비술어문>으로 나눌 수가 있다. 비술어문에는 간투사만으로 구성된 문장을 비롯,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후후.”, “그럼요?”, “물론.”, “어떻게요?”, “아니요.” 등, 一語文으로 나타나는 예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자주 나타난다:

- 조금 더 아래로. <재즈/127>
- 죽일 놈의 쌍화탕 한 병. <재즈/129>
- 눈을 뜨면 또 하루가 가고 내 손엔 작은 너의 사진뿐. <존재>

술어문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1)동사, (2)형용사, (3)존재사, 그리고 (4)지정사를 수반한 체언이다. 지정사를 수반하지 않는 체언만으로 끝난 문장도 있으나, 주어

6) 계층구조를 논하는 본고에서는 층위(level)라는 말을 너무 다양하게 사용하면 오해를 초래하기 쉽다. 이런 경우에는 평면(plane)이라고 하기로 한다. 러시아의 문법에서는 план에 해당된다.

에 해당되는 성분이 없을 경우에는 특히 문장의 통합력이 약화되어 술어문과 비술어문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다만 주어에 해당되는 성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정사가 없어도 어느 정도 술어로서의 통합력을 보여 준다:

- 마음은 언제나 청춘 <서울/39>
-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 모래시계 세대의 과제는 신화를 깨는 것 <이매진/68>
- 성은 김이고 이름은 춘자, 오 나의 사랑 춘자. <첫사랑/199>

한편 用言化接尾辭 <-하다>가 결합된 活動名詞, 營爲名詞, 性質名詞⁷⁾의 경우에는 격지배의 기능도 가지므로 술어로서의 통합력이 한층 명백하다. 이들은 형태론적으로 명사의 형태를 가지면서도 통사론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용언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 한국이 일본을 앞다.
- 관광지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 <서울/104>
- 한번 다녀오면 가게부가 여유만만 <서울/184>

4. 文章과 節

4.1. 절

한국어에서의 문장에 주어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節(clause)의 자격도 <주어 + 술어>의 유무가 아니라 술어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온당하다. 어떤 문장 안에 술어로 통합된 또 하나의 구조체가 나타날 때, 그것을 절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때, 포함하는 절을 上位節(母文), 포함되는 절을 下位節(內包文)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의 문장은 절을 내포하는 節構造文과 절을 가지지 않는 非

7) 명사분류에 대해서는 노마[野間秀樹](1990b) 참조. 不可算명사 가운데서 <-하다>를 붙이면 동사가 되는 것 중에서 <-를/-을 가다>를 붙일 수 없는 것을 活動名詞, <-하다>를 붙이면 동사가 되고 아울러 <-를/-을 가다>를 붙일 수 있는 명사를 營爲名詞, <-하다>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것을 性質名詞라고 한다. “시작”, “감격” 등이 활동명사, “여행”, “목욕” 등은 영위명사, “무리”, “필요” 등은 성질명사의 예이다. 형태는 명사이면서 기능적으로 용언의 구실을 하는 일련의 단어에 대해서는 노마[野間秀樹](1990b:36-37) 참조.

節構造文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시절.
<재즈/171>”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술어문이 아닌 절구조문도 있다.

4.2. 절의 종류

한국어의 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

- 主節 = 문장을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술어를 가지는 절
- 並列節(對等節 혹은 等位節) = 주절과 대등한 자격을 가지는 절
- 從屬節(從位節 혹은 副文) = 상위문에 종속된 절
- 連用節(副詞節 혹은 狀況節) = 용언을 수식하는 절
- 名詞節 = 명사의 기능을 가지는 절
- 連體節(形容詞節 혹은 冠形節) = 체언을 수식하는 절
- 引用節 = 인용된 절

용언을 보충하는 절은 補足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사절과 인용절에 겹치는 것이다. 병렬절과 종속절을 합해서 接續節이라고 할 수도 있다.

4.3. 連用節(副詞節 혹은 狀況節)

연용절은 <하다가>, <하면서>, <하니까>⁸⁾ 등을 비롯한 용언의 접속형(부동사형)으로 통합(integrate)되거나 부사형 <하게>로 통합되면서 상위절의 용언을 수식하는 절이다. 連用修飾節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연용절 그것 자체로 終結시켜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으며, 종속절 가운데에서는 독립성이 강한 절이다. 각각 <-요>를 붙여서 중지시킬 수도 있다. 접속형어미도 다양하므로 연용절은 다른 종속절에 비해 기능적으로도 가장 많은 유형이 있다. 의미와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빈도가 높은 유형이다:

樣態節: 달준씨는 [비스듬히 누워서] 천장을 보았다. <인간/14>

目的節: 하루는 녀석이 [학교에 안 가려고] 뱅글뱅글 돌았다. <인간/14>

條件節: [그 일만 끝나면] 아주머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신발/297>

8) 본고에서는 용언의 諸形式을 나타내는 데에 대표적인 용언 <하다>를 사용해서 <하다가>, <하면서>, <하니까> 등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理由節: [집이 없으니까] 나무 밑에서 새우잠을 자곤 했는지 뵈니까? <왜/138>

讓步節: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패하지는 않을 거다. <호박/42>

契機節: [저기서 보니까] 쪽 퍼 마시더니 아직까지도 컵을 들고 있네.

反意節: (前略)[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이다.<원미/82>

4.4. 명사절과 인용절

<하기> 혹은 <함>처럼, 용언의 명사형어미(補文素)로 통합(integrate)된 것이 전형적인 명사절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은 그것 자체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독립성이 아주 강한 종속절이다.

인용절은 인용구조에 들어가는 절인데, <문장 + -고/-는/- ㄹ ... >와 같이 여러가지 형식이 있으며 명사절이나 보속절 등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인용절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⁹⁾

4.5. 병렬절의 문제

한국어 문법에서는 흔히 <하고>나 <하며>, 혹은 <하거나> 등으로 연결된 문장을 병렬절의 전형으로 간주하여 영어의 <문장(병렬절)+and+문장(병렬절)>와 같은 구조와 비교하지만, 한국어의 병렬절은 영어 등의 대동절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선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한국어의 <하고>, <하며> 그리고 <하거나>는, 그 자체가 문장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또 하나의 중지형술어(종결어미)를 요구한다. 말하자면 <亞文(병렬절)+문장(주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하고>, <하며> 그리고 <하거나>로 형성되는 병렬절은 <하니까>, <해서> 등, 다른 종속절과 형태상의 자격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흔히 대동접속소(coordinator)라고 불리는 접속형어미 <-고>도, 종속접속소(subordinator)라고 불리는 <-니까> 등의 접속형어미와 통사론적, 의미론적 평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지언정, 형태론적인 평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다. 접속형으로 구성되는 한국어의 병렬절은 말하자면 의미적으로 독립성이 강한 연용절(부사절)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고 ...한다>와 같은 문장을 영어의 <문장(병렬절)+and+문장(병렬절)>와 같은 문장하고 a priori하게 같은 것으로서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국어에 순수한 병렬절은 접속형어미를 사용하는 從屬統語(hypotaxis)의 경우에

9) 인용문의 유형을 다른 논고로서 안경화(1995)가 있다.

는 있을 수가 없으며, 오직 “왔다, 보았다, 이겼다.”와 같은 並列統語(parataxis)의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6. 連體節(冠形節)의 특수성

연체절(관형절)은 용언의 연체형(관형사형)으로 통합되면서 체언을 수식하는 절이다. 예를 들어 일본어도 연체절을 가지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연체형과 종지형은 항상 그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큰 차이를 보여 준다. 그리고 연체절은 그 자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被修飾體言을 필수로 후속요소로서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절이나 명사절은 물론, 연용절과 비교해도 독립성이 아주 약하다. 말하자면 <연체절+피수식체언>이라는 조합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명사절로서 온전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셈이다. 현대한국어에서는 구조상의 독립성이라는 점에서 연체형은 다른 절보다 한 단계 하위에 속하는 절이라고 보아야 한다.

연체절의 피수식명사 즉 head noun이 연체절 내부의 한 성분이 되는가 어떤가로 연체절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연체절 내부의 주어로서는, 일반적으로 <-가/-이>만 쓰이고 <-는/-은>은 對比, 對照를 나타낼 경우에만 쓰인다는 결정적인 특징을 가진다. 한국어의 연체절의 주어와 그 어미(조사)에 관해서 지금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았지만, 연체절의 구조, 그리고 문장구조 일반에 대한 고찰에서는 아주 큰 문제를 제기하여 준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別稿로 미루기로 한다.

연체절에 관해서는 단독으로 나타난 용언의 연체형, 특히 다음에 “[]A”로 제시한 형용사의 연체형을 연체절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 [네 얼굴을 비추는]V [노란]A 햇빛은 [내가 가게 될]V [다른]A [좋은]A 세상에서 오는 것 같았다. <첫사랑/218>
- 그는 [처음 만난]V 여자를 세워 두고 훌쩍 자전거에 올랐고 [뜻밖의 일에 놀란]V 저는 [뜨거운]A 태양 밑에서 [키 작은]A 그림자를 만들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구니/54>

형용사의 연체형을 述語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술어에 해당되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미 문장과 절에 대한 자격에서 논의했듯이 한국어에서는 주어는 어디까지나 필요할 때에만 쓰는, 임의적인 존재이다. 그렇다면 주어가 없다는 이유로 형용사의 연체형을 연체절의 술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어떤 주어를 상정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필요도 없다. 주어가 없더라도 형용사의 연체형은 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름다운 꿈”과 “아름다웠던 꿈”처럼, 형용사의 연체형은 시제(tense)의 대립을 가진다는 사실도 형용사의 연체형을 절로 보는 견해가 타당한 것임을 뒷받침하여 준다. 똑 같이 체언을 수식하는 성분이라도 속격어미 <-의>를 가진 명사는 시제의 대립이 없는 것이다.¹⁰⁾

4.7. 單一節과 擴大節(展開節)

절은 그 통합양상으로 보아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單一節(single clause)

용언의 종합적인 형식¹¹⁾으로 통합되어 있는 절.

(2) 擴大節(展開節)(expanded clause, enlarged clause)

용언의 연체형(관형사형)이나 명사형 뒤에 다른 요소를 더 수반한 구조체를 가진 절.

접속형(부동사형)이나 명사형 <하기>, <함>, 연체형(관형사형)으로 통합된 절은 모두 단일절에 속한다. 확대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비롯, 많은 變種이 존재한다. 그 모두가 확대된 이중구조 구조체를 가지는 것들이고 단일절과 같은 순수한 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기능적으로는 충분히 절의 구실을 하는 구조체이다. 기능적으로는 명사절이나 연용절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들이 많다:

<연체형 + 불완전명사>	<...하는 것>
<연체형 + 명사>	<...할 때>
<명사형 + 불완전명사>	<...하기 때문>
<명사형 + 명사 + 어미>	<...하기 전에>
<명사형 + 후치사(불완전용언)>	<...하기 위하여>

이들 가운데는 확대종속절과 주절 사이의 선행 - 동시 - 후속 등의 taxis¹²⁾적인

10) 형용사의 연체형을 연체절로 볼 수 있으나 하는 문제는 이흥식(1990)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본고처럼 생각한다면 쉽게 그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1) 한 단어 내부에 각종 접미사, 어미가 결합한 형식은 <종합적인 형식>이라고 하며, 보조적인 단어를 포함한 2단어 이상으로 구성되는 문법적인 형식은 <분석적인 형식>이라고 한다. 간노[菅野裕臣](1988:1018) 참조.

12) Taxis는 Jakobson(1971:135-146)이 처음으로 제기한 개념이다. Bondarko는 Jarceva(1990:

기능을 가지는 것도 있어 한국어 문장의 의미적인 계층구조를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8. 확대절로부터 mood, modality 語形으로

확대절 중에서 그 구조체가 더욱 강하게 결합하여, 하나로 굳어지면서 용언의 mood, modality어형으로 성장한 것들이 있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할 것 같다>,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해도 되다> 등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구조적으로는 절을 내포하면서도, 기실 기능적으로는 구조체 전체가 용언의 paradigm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분석적인 형식>이며, 문장구조를 생각할 때, 그 구조체 전체를 문법화(grammaticalization)된 용언의 어형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대절 전체가 이미 하나의 독립된 문법형식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¹³⁾

일반적으로 이들 분석적인 형식은, 단일절에 비해 주어의 제약 등이 훨씬 자유롭다. 예를 들어 연체절(관형절)의 주어를 나타내는 어미(조사)로서 <-는/-은>은 기본적으로 올 수 없는 데 비해, 연체절이 확대된 이들 분석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그 친구는 [학교에 갈] 사람이다.

●[그 친구는 학교에 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도 “[그 친구는 학교에 갈] 것이다.”나 “[그 친구는 학교에 갈 것]이다.”와 같은 분석보다 “갈 것이다” 전체를 하나의 述語로 보는 것이 훨씬 언어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03-504)에서 taxis를 다음과 같이 정의, 설명하고 있다: <動作들 사이의 시간적인 諸關係를 특징짓는 언어적인 범주 (넓은 의미에서는 述語辭들의 임의의 변종을 포함): 同時性/非同時性, 中斷, 주된 動作과 共起하는 動作의 相互關係 등. Taxis는 동작들의 시간에 있어서 관계짓는 복합체의 aspect적인 (상적인) 특징짓기를 포함하고, 또한 원인-결과적인, 讓步-反意의인 의미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한국어의 taxis, 특히 독립(비종속) taxis에 대해서는 하마노우에(浜之上幸)(1992:15-82) 참조. 종속 taxis에 대해서는 노마[野間秀樹](1993b:38-54)도 참조.

13) 한국어는 분석적인 형식이 풍부하나, aspect 어형인 <하고 있다>, <해 있다> 등 이외에는 연구된 바가 극히 적다. 예를 들어서 <할 것이다>는 분석적인 형식이고 <하겠다>는 종합적인 형식인데, 서로 mood 어형으로서 대립하고 있다. 분석적인 형식을 용언의 paradigm으로서 파악하는 의의는 이런 데에서 나타난다. 노마[野間秀樹](1988, 1990a) 참조.

5. 節의 내부구조

5.1. 종속절과 주어

이어서 한국어의 節의 내부구조를 살펴 보기로 한다. 가령, 접속형어미 <-면서>로 통합되는 절은 — 그것을 간단하게 <하면서節>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 두 가지 동작의 병렬, 동시성을 나타낼 경우에는, <하면서節>의 述語에만 대응하는 주어를 절 내부에 가질 수가 없다:

- 나는 [가게를 나오면서] 너에게 물었다. <첫사랑/206을 變改>
- 할아버지는 [마당을 팡팡 구르면서] 화를 냈다. <호박/19>
- 고모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호박/59>

<하면서節> 앞에 나타나는 <-가/-이>나 <-는/-은>을 가지는 단어는 <하면서절> 내부에서만 기능하는 주어가 아니라, 반드시 <하면서節> 밖에서 즉 <하면서節>의 上位節의 주어로서 기능하면서 상위절과 <하면서節>의 주체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미상으로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면서節>에 선행하는 주어를 <하면서節> 뒤에 이동시켜 보아도 알 수 있다:

- [가게를 나오면서] 나는 너에게 물었다. <첫사랑/206>
- [마당을 팡팡 구르면서] 할아버지는 화를 냈다. <호박/19를 變改>
- [웃으면서] 고모가 대답했다. <호박/59를 變改>

본고에서 조사한 기본자료에는 이런 의미의 <하면서節> 내부에 주어를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동작의 병렬, 병행을 나타내는 이러한 <하면서節>은, 상위절의 동작이 어떤 식으로 행해지는가를 덧붙여 설명해 주는, 동작의 <樣態>를 나타내는 절이다. <양태>는 <行動樣式>이라고 해도 좋다. <양태>를 나타내는 연용절을 <양태절>이라 부르기로 한다.¹⁴⁾ <양태절>은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혹은 <어떻게>라는 의문에 호응하는 경우가 많다:

14) <양태>라는 術語를 <modus> 혹은 <modal>의 翻譯語로서 쓰는 학자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뜻, 즉 동작이 <어떤 식으로> 혹은 <어떻게> 행해지느냐는 동작의 행동양식, 존재양식을 나타내는 術語로서 사용한다.

-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 <텔레비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야.

한국어에서는 <하면서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양태절은 그 내부에 독자적인 주어를 포섭할 수가 없다. 양태절의 述語와 호응하는 주어는 양태절 안에는 없으며 주체의 표시는 항상 상위절의 주어나 문맥에 의존된다. 다음과 같은 <하다가節>도 양태절의 일종이다:

- 여인은 [잠깐 주춤거리다가] 과장실을 나왔다. <신발/309>
 ● [잠깐 주춤거리다가] 여인은 과장실을 나왔다. <신발/309를 變改>

기본자료 중 <하다가節>은 183例가 나타났지만, 그 중 주어가 <하다가節> 안에 포섭되어 있는 예는 하나도 없었다. 68例가 수집된 <했다가節>, 12例가 수집된 <해다가節> 역시 주어를 포섭한 예는 없었다.¹⁵⁾

노마[野間秀樹](1993b:11-13)에서는 절을 통합하는 접속형이나 분석적인 형식에는, S를 주어, V를 述語로 표시하면, <S1-V1-V2>라는 구조를 가진 <하다가>, <하고는> 등의 <繼起型>과, <S1-V1/S2-V2>라는 구조를 용납하는 <할때>, <하고> 등의 <並列型>이 있다고 하였다. <S1-V1-V2>의 구조를 가진 <繼起型>은 절의 계층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節構造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주어] [술어a] 술어b]

그러므로 쉽게 다음과 같은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 [[술어a] 주어] 술어b]

이에 비하여 <S1-V1/S2-V2> 구조를 가진 <並列型>은 위와 같은 제시한 이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해서節> 중에도 <양태절>이 있다:

-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원미/98>
 ● 그날 밤에 [여기에 앉아서] 난 다 봤어요. <원미/98을 變改>

15) <하다가>와 주어의 관계에 관해서는 노마[野間秀樹](1993b:7-14)를 참조.

양태절은 그 안에 주어를 포섭할 수 없다는 이 명제는, 흔히 병렬절의 전형으로 거론되는 <하고節>에까지 적용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 너는 [나를 끌고] 땀집 안으로 들어갔다. <첫사랑/205>
- 그럼 누나두 [눈 감고] 걸어!」 <술래/212>
- 또 다음 데이트 날엔 조 [팔짱을 꼬옥 끼고] 걸어 볼래요. <바구니/71>을 變更

5.2. 절구조와 용언

모든 동사가 양태절로서의 <하고節>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동사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鄭玄淑(1996:27)은 하마노우에[浜之上幸](1991:22)의 <客體保持>와 <主體保持>에 해당되는 동사들은 모두 <양태>를 나타낸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鄭玄淑(1996:28)은 또한 노마[野間秀樹](1993a:142-145)에서의 <主體>에 대한 再歸的인 作用>을 나타내는 타동사 중, 특히 <머리에 모자를 쓰다>나 <옷을 입다> 등의 <着動詞>, <입을 열다>나 <이를 갈다> 등 <身體動詞>, <모습을 나타내다>나 <학교에서 자취를 감추다> 등 <出沒動詞>, <관심을 갖다>나 <기차표를 끊다> 등의 <所有動詞> 등은 <양태절>로서의 <하고節>을 형성한다고 논하였다. 이들은 <양태절>로서의 <하고節>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예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절을 구성하는 용언들의 분포와 절의 성격, 절의 계층구조 사이에 아주 긴밀한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한국어의 절의 구조는 그 자체에 이미 용언의 분포, 용언의 어휘적인 의미의 유형이라는 契機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용언의 종류 그 자체가 문장의 계층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같은 <하면서節>이면서도 동작의 병렬을 나타내지 않고, <契機>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예들은 절 내부에 주어를 포섭할 수가 있다:

- [바람이] 세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모독/22>
- 밤열차가 움직이고 [점차 서울이] 가까워지면서] 여자는 동시에 축제가 끝나가는 아쉬움이 들었다. <군것/39>

<契機>를 나타내는 이러한 <하면서節>의 주어로서는 不活動體名詞¹⁶⁾가 많이 쓰

16) 여격에서 <-에게> 및 <-한테>를 취하는 명사를 活動體名詞, <-에>를 취하는 명사를 不活動體名詞라고 한다. Kholodovich(1954:50), 노마[野間秀樹](1990b:11) 및 간노[菅野裕臣](1995:7)의 <有情名詞/無情名詞> 참조.

이고, 그 <하면서節> 내부의 주어는 節 뒤로 옮길 수도 없다.¹⁷⁾ 그리고 <하면서> 형을 취하는 용언은 無意志動詞¹⁸⁾일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하면서節>인데도 <양태절>이나 <계기절>이나에 따라 취하는 용언의 종류까지 분포상의 편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3. 절의 기능과 내부구조

이러한 사실은, 같은 접속형으로 통합되는 절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 따라 절의 내부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예를 들면 權在淑(1994b)에서는 <해서節>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음을 밝힌 후, 그 중 동작의 <선행>과 <양태>를 나타내는 그룹은 기본적으로 <해서節>과 상위절의 주체가 동일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거기에 열거된 예들은 그 모두가 <해서節> 안에만 주어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고, 본고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해서節> 중에서도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절은 <해서節>과 상위절의 주체가 다른 예가 40.5%, 동일한 예가 33.0%, 상위문의 용언이 없는 것들 등 기타 26.5%로 보고되어 있다. 그 결과와 예를 살펴보면 <해서節> 중에서도 <원인·이유절>로서의 <해서節>은 명백히 주어를 그 내부에 포섭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각 접속형마다 조사를 해 보면, <원인·이유절>이나 <反意節>은 주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요소를 포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5.4. 節과 題目語(主題語, 提題語)

17) 시바[柴公也](1994)에서는 <同時>를 나타내는 <하면서>는 전항과 후항의 주어가 동일하지만, <契機>를 나타내는 <하면서>는 달라도 무방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여기서도 <계기>를 나타내는 <하면서절>이 주어를 포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8)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하라>나 <해라> 등의 명령형, <하자> 등 권유형, 희망형 <하고 싶다>와 같은 형식을 취할 수 있는 용언을 意志用言이라 한다. 의미론적인 측면에서는 주체의 의지에 의해 制御할 수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용언들이다. 의지용언에는 意志動詞를 비롯, 일본어 <inu>의 의미의 <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처럼 명령형으로 쓰일 때의 <행복하다>, <건강하다> 등의 일부 意志形容詞가 속한다. 간노[菅野裕臣](1986-7, 1995:7,9,12,13) 참조. 타동사의 대부분은 의지동사이지만 노마[野間秀樹](1993a:149)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무의지동사도 있다. 의지용언/무의지용언의 범주가 접속형(부동사형)이 실현하는 의미에 크게 관여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權在淑(1992:46-47,51,1994a,1994b), 노마[野間秀樹](1993b:14-17), 시바[柴公也](1994,1995), 鄭玄淑(1996) 참조. 의지동사와 <의지>의 의미의 실현 관계에 대해서는 노마[野間秀樹](1988:52-56)를 참조.

主題(theme)란 발화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말해지는 요소이다. 말해지는 무엇인가를 敘述(theme)이라고 한다. 주제는 <말하고 말해지는> 傳達論의 관계, 즉 발화의 기능적인 평면에 있어서의 術語이다. 주어가 어디까지나 문장성분의 평면의 術語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주제-서술은 話題 내지 題目(topic) — 評言(comment)이라는 術語를 사용해도 결국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주제·제목은 단어일 수도 있고 단어결합이나 절일 수도 있다. 주제·제목이 단어일 경우에 제목어(주제어, 제제어)라고 부른다. <-는/-은>은 한국어의 제목어표시의 전형적인 어미(조사)이다. <-는/-은> 제목어는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¹⁹⁾

이 제목어 역시 종속절의 종류에 따라 포섭관계가 정해진다. <양태절>에는 제목어가 포섭되지 않는다:

● 할아버지는 [마당을 팡팡 구르면서] 화를 냈다. <호박/19>

<양태절>의 일종인 <하다가節> 역시 제목어를 포섭할 수 없다.

본고에서 조사한 13,899개의 문장 중, <조건절>인 <하면節>은 853例 있었는데, <-는/-은>을 가진 제목어를 <하면節> 안에 내포하는 문장은 하나의 예도 없었다. 즉, <하면節>에도 <-는/-은> 제목어는 포섭되지 않는 것이다.

19) 다음 각 術語들은 각각 다른 평면에서의 術語로서 구별하여야 한다:

- 문법적인 격으로서의 <主格>,
- 문장성분으로서의 <主語>,
- 의미적인 평면에 있어서의 <동작이나 상태>의 <主體>,
- 능동적인 동작의 주체로서의 <動作者>
- 傳達論적인 평면, 즉 발화의 평면에서의 <主題>,
- 문법적인 인칭으로서의 <一人稱>,
- 발화의 담당자로서의 <話者>,
- 텍스트 생산자로서의 <作者>.

이 중, <주격> 및 <주어>는 언어표현에서 형식으로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형식으로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마[野間秀樹](1988:67, 1990:57) 참조. 쓰노다[角田太作](1991:165-224)는 의미역할에 있어서의 <動作者>, 격에 있어서의 <主格>, 정보구조에 있어서의 <主題>, 문법기능에 있어서의 <主語>를 서로 구별해야 함을 논하고 있다. 이회자(1994:325-327)는 특히 텍스트론의 관점에서 <주제>는 <문장>의 구성성분이 아니라 <발화문>(utterance)의 구성성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5.5. <對比·對照>를 나타내는 <-는/-은>과 절

단, 기본자료 중에서 <하면節>의 다음과 같은 특이한 예가 단 하나 발견된다. 이것은 <-는/-은>에 의해서 <對比·對照>를 나타내는 용법인데, 이 용법에 경우에 만 <-는/-은> 제목어는 <하면節> 안에 포섭될 수 있다. 이 사실은, 연체절(관형절) 안에는 일반적으로 <-는/-은>이 들어갈 수 없지만, <對比·對照>를 나타내는 <-는/-은>은 들어갈 수 있다는 점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 [어머니는 지레 뒤로 멀찍이 물러서서 영원히 패배한 꼴로 주저앉는 편이라면]
누나는 물러서는 척하면서 실상은 남보다 앞에 나가 버티고 서있는 것이었다.
 <술래/214>

5.6. 절과 문장성분

제목어나 주어 이외의 문장성분은 절의 포섭관계가 어떠할까? 이미 든 예에서 알 수 있듯이 對格語尾 <-를/-을>을 가진 補語(complement, дополнение)(對象語, 目的語)는 <하면서節>과 같은 亞節 안에도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에>나 <-에게/-한테>로 나타나는 與格補語(間接目的語),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具格(도구격) <-로/-으로> 역시 마찬가지다. <천천히>와 같은 樣態副詞도 <양태절> 안에 포섭될 수 있다.

<전혀>나 <별로>와 같이, 否定과 호응하는 단어, 즉 否定極語(negative polarity item)²⁰⁾는 <양태절>로서의 <하면서節>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 <전혀 안 하면서>와 같은 부정형은 <안 하는 주제에>나 <안 하면서도>라는 의미가 될 경우가 많아, <양태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양태절>인 <하다가節>이나 <해서節>에는 否定과 호응하는 부사도 들어갈 수 있다.

<집에서 놀다>에 있어서의 處格 <집에서> 등의 장소를 나타내는 狀況語(обстоятельство)와, <지금>, <아까>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상황어는 <양태절>로서의 <하면서節>, <하다가節>, <해서節>에는 포섭되지 않고, <條件節>인 <하면節>이 되어야 겨우 포섭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다:

20) 한국어의 否定極語에 대해서는 任洪彬·張素媛(1995:432-438) 참조.

● 표 : 종속절은 문장의 어떤 요소를 자신 안에 포섭할 수 있는가

+ : 포섭된다 - : 포섭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인(非modal한) 요소										
	상대적으로 주관적인(modal한) 요소→										
포섭되는 요소→	對 格 對象語	與 格 對象語	樣 態 副 詞	否定呼 應副詞	場 所 狀況語	主 語	時 間 狀況語	主 題 -는/-은	評 價 副 詞	陳 述 副 詞	
포섭하는 절↓	그것을	그에게	천천히	전혀	집에서	동생이	지금	非對比	대단히	아마	
樣態節 하면서	+	+	+	-	-	-	-	-	-	-	
樣態節 하다가	+	+	+	+	-	-	-	-	-	-	
樣態節 해서	+	+	+	+	-	-	-	-	-	-	
條件節 하면	+	+	+	+	+	+	+	-	-	-	
理由節 해서	+	+	+	+	+	+	+	+	+	+	-
理由節 하니까	+	+	+	+	+	+	+	+	+	+	-*
讓步節 해도	+	+	+	+	+	+	+	+	+	+	-
反意節 하지만	+	+	+	+	+	+	+	+	+	+	-*
反意節 하는데	+	+	+	+	+	+	+	+	+	+	-

(주) <집에서 놀다>의 <-에서>는 處格이며 任意的인 성분을 이루는 상황어지만, <집에서 오다>에 경우의 <-에서>는 離格이며 필수적인 성분으로서의 補語이다. 노마(野間秀樹)(1993a:120-123) 참조. 이 표에서는 상황어에 대해서만 표시하였다. 문장에 있어서의 <-에서>격의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趙義成(1994) 참조.

(주) <主題>는 <-는/-은>을 가진 것이지만 대비·대조의 기능을 가진 것을 제외한다.

(주) <하면서>는 <양태>의 뜻을 나타내는 것만을 표시하였다. <하는 주제에>의 의미가 되는 것, <계기>를 나타내는 것은 제외되고 있다.

(주) “*”표시를 한 것은, <할테니까>, <하겠지만>처럼 접속형에 다른 문법형식을 결합시키면 가능해지는 것들이다.

표를 보면, 주어, 보어, 상황어 등, 여러가지 요소들 중, 어떤 요소를 포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종속절의 종류마다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도, 진술부사, 평가부사와 같이 話者의 주관적인 색채가 짙은 요소일수록 포섭할 수 있는 종속절이 제한되어 있고, 반대로, 대격보어, 여격보어와 같이 화자의 주관성과는 거리가 먼 요소일수록 많은 종속절에 비교적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사태 그 자체를 命名하는, 相對적으로 객관적인 요소는 종속절의 종류를 막론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modal한 요소일수록 포섭되는 종속절이 제한되고, 명제에 가깝고 객관적인 요소일수록 다양한 종속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양태절>같은 <작은> 절에는 명제에 가까운 요소만이 포섭되고, <조건절>처럼 좀 더 <큰> 절이 되면 <양태절>에 비해 더 많은 요소를 자신 안으로 포섭할 수 있으며, <이유절>이나 <양보절>의 경우에는 더 주절에 가까워진다. 모든 요소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절은 문장과 일치되는 셈이다.

5.7. 절과 용언의 문법범주

<양태절>은 절 내부에 주어나 modal한 요소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述語는 시제의 대립도 없으며 여러가지 mood 형식도 취할 수가 없다. <하면서>은 <하겠으면서>나 <하더면서>처럼 mood 접미사(선어말어미)인 <-겠->이나 <-더->는 형태상 아예 취할 수가 없고, <했으면서>라든지 <할 것 같으면서>처럼 시제나 분석적인 mood 형식을 취했을 경우에는 순수한 동작의 병렬,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못하여 이미 <양태절>의 성격을 잃고 있다. 즉 <양태절>은 주어와 modal한 요소들을 그 내부에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시제나 mood의 대립도 없는 것이며, 절로서의 온전한 성격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양태절>은 그런 의미에서 <절> 중에서는 가장 <절>답지 않은 존재이며, 온전한 <절>이라기보다는 <句>(phrase), <亞節>(sub-clause) 혹은 <擬似節>(pseudoclause)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이다.

<조건절>인 <하면서>은, <했으면>이나 <할 것 같으면>처럼, 시제나 modal한 요소를 그 내부에 가질 수 있다. <양태절>에 비해서 한층 더 큰 절이라 하겠다. <이유절>인 <하니까>도 <했으니까>, <할 것 같으니까>가 가능하다. <反意節>인 <하지만>은 <했지만>, <할 것 같지만> 뿐만 아니라 <하겠지만>이나 <할 것이지만>과 같은 것까지 허용한다. <반의절> 중에서도 <하는데>은, <했는데>, <할 것 같은데>, <하겠는데>, <할 건데> 그리고 <하던데>까지 허용하는 것을 보면, 거의 주절에 가까운 가장 <큰> 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속절의 述語는 어떤 문법형식을 내부에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표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논의되었지만, 본고에서는 각 절의 기능별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표: 종속절의 述語는 어떤 문법형식을 내부에 가질 수 있는가

+: 절 내부에 가질 수 있다 -: 절 내부에 가질 수 없다

		-았-/었-	-ㄴ 것 같-	-겠-	-ㄴ 것이-	-더-
樣態節	하면서	-	-	-	-	-
樣態節	하다가	+	+	-	-	-
樣態節	해서	-	-	-	-	-
條件節	하면	+	+	-?	-?	-
理由節	해서	-	+	-?	-?	-
理由節	하니까	+	+	+	+	-
讓步節	해도	+	+	-	+	-
反意節	하지만	+	+	+	+	-
反意節	하는데	+	+	+	+	+

6. 節의 계층구조

6.1. 연용절(부사절)의 계층구조

다음으로, 한국어 문장의 절의 상호관계에 주목해 보면, 절들은 서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포함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가라시(五十嵐孔一)(1996a,b)는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하니까節>과 <해서節>이 다른 종속절의 부분이 될 수 있는가를 조사하여 종속절의 포섭관계·계층관계를 밝히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

대상을 보다 더 넓혀서 조사를 해 보면, 실은 <원인·이유절> 뿐만 아니라 다른 종속절에 있어서도 종속절의 상호 포섭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다. 우선, 지금까지 논해 온 절 중에서 가장 작은 절 중의 하나인 <양태절>로서의 <하면서節>을 보면, 그 내부에 명백히 포섭될 수 있는 것으로서는 <하러節>과 <해도節> 등 아주 국한된 것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잠자리] 가면서] 이 말은 괜히 했다고 후회했다. <모독/22>
- 누나가 [[내 고무신짝을 주워다] 내 앞에 놓으면서] 말했다. <술래/226>

<하다가節>은 <양태절>로서의 <하면서節>을 포섭할 수 있다:

● [[자면서] 꿈을 꾸다가] 무서워서 잤다.

<조건절>인 <하면節>은 <하다가節>과 같은 <양태절>을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

● [[가다가] 진창이 있으면] 돌아가야 할 텐데, 너는 발이 빠지면서도 돌아갈 줄 모르는 고집장이야. <먼그대/27>

<이유절>로서의 <하니까節>은 <조건절>인 <하면節>을 포섭할 수 있다:

● (前略)[이제 손을 놓으면] 난 빠져 죽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인간/55>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조사를 해 나가면 종속절의 상호 포섭관계를 알 수가 있다. 본고에서 조사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표: 從屬節의 相互 包攝關係

+: 상위절이 當該 節을 포섭하는 것

-: 상위절이 當該 節을 포섭할 수 없는 것

포섭되는 節→ (下位節) 포섭하는 節 (上位節)↓	樣態節 하면서	樣態節 하다가	樣態節 해서	條件節 하면	理由節 해서	理由節 하니까	讓步節 해도	反意節 하지만	反意節 하는데
樣態節 하면서	—	—	—?	—	—	—	—	—	—
樣態節 하다가	+	—	+	—	—	—	—	—	—
樣態節 해서	+	—	—	—	—	—	—	—	—
條件節 하면	+	+	+	—	+	—	—	—	—
理由節 해서	+	+	+	—	—?	—	—	—	—
理由節 하니까	+	+	+	+	+	—	+	—	—
讓步節 해도	+	+	+	+	+	—	—	—	—
反意節 하지만	+	+	+	+	+	+	+	+	—
反意節 하는데	+	+	+	+	+	+	+	—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절의 상호 포섭관계에 의해 절의 계층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절의 내부구조에 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5-6 참조), <양태절>은 여기

서도 역시 가장 작은 절이고, <조건절>이 그것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크며, <반의절>은 가장 큰 절을 이루고 있다. 절이 크고 작음은 바로 절의 상호 포섭관계에 직결되는 것이며 절의 포섭관계의 존재는 문장의 내부구조에 절을 단위로 하는 계층구조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6.2. 병렬절과 포섭관계

<하고>의 여러가지 용법 중에서, 순수한 병렬절을 이루는 <하고>는, 통사론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양태절> 이외의 모든 계층의 종속절에서 하나의 述語를 <述語1하고 述語2>라는 2개의 형태로 나누어서 병렬시킬 수 있다. 용언의 품사에도 제한이 없다:

-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신혼/41>²¹⁾
- 저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불을 꼭 뒤집어 써버렸죠. <신혼/32>

하나의 述語를 <述語1하고 述語2>라는 2개의 형태로 쪼개어서 병렬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하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²²⁾

<양태절>인 <하면서> 내부에서는 <하고>나 <하며>로 병렬절을 형성하기가 약간 어려워 보이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

21) 문법서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이런 문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 것은 <저는>이라는 단어가 주절의 述語에까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조작이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을 이동시켜 보면 위와 같은 분석의 부적절함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당황해서] [저는 너무 놀라고]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저는]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본고에서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저는>이 이동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저는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3-1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를 멋대로 가상하여 나중에 그 “주어”가 “생략”되었다든지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념적인 조작에 불과하다.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형식을 만들어 내놓고 그것을 수정하는 절차를 “규칙”화하는 따위의 노력은 概念裝置의 장난이며 言語事實을 해명하는 데에 있어서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저는 너무 놀라고] [저는 당황해서] 저는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22) <병렬절>에 대해서는, 풍부한 용례를 가진 鄭玄淑(1996)의 “<並列>을 나타내는 용법”에 대한 기술이 큰 도움이 된다. 그러한 기술에 <절>의 구조를 관찰하는 관점을 가하면 더욱 깊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밥하고> <청소하면서>] 바쁘게 하루를 지낸다.

6.3. 연체절(관형절)과 연용절(부사절)의 계층관계

연체절(관형절)과 연용절(부사절)의 상호관계에서도 일정한 계층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가라시[五十嵐孔一](1996a,b)에서는, 연체절 안에서 <하니까節>은 <원인·이유>를 나타내기 어렵고, <해서節>은 <원인·이유>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바로 연체절과 연용절 사이에도 계층구조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본고에서 수집된 용례로 확인해 보자:

- (略)그리고 [[더워서] 고생하는] 아빠를 위해 선풍기도 그려 놓았다. <군것/5>
- 구매부장은 [[기름져서] 번들거리는] 얼굴로 자가용까지 몰고 다닌다. <막차/67>

위의 용례는 <하니까節>로는 바꾸어 놓으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것은 <이유節>로서의 <해서節>은 연체절 안에 포섭될 수 있으나, <하니까節>은 포섭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유의 해서節] 연체절] 주절]
- [[원인·이유의 하니까節] 연체절] 주절]

요컨대 <하니까節>은 <해서節>보다 큰 것이다. 또 <해서節>은 <하니까節>에 포섭될 수 있으나, 그 반대는 어렵다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다. 사실, 기본자료 안에서 <하니까節>에 포함된 <해서節>은 하나도 없었다.

6.4. 확대절을 구성하는 연체절과 연용절의 상호관계

연체절이 확대절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서節>은 물론, <이유節>로서의 <하니까節>도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우린 [그저 서로가 좋아서 좋으니깐] 결혼한 것이지] 육체를 위해 결혼한 건 아니잖아? <신혼/45>

이것은 확대절이 이미 <...한 것이다>라는 mood 語形을 구성하고 있으며, <결혼한>이라는 연체형은, 연체절을 통합하는 술어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분석적인

mood 어형의 구성요소로서의 기능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연체형이 연체절을 통합하는 기능보다 용언의 한 어형으로서의 확대절 전체의 새로운 기능이 통사론적으로는 훨씬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연체절의 주어 문제와 비슷한 성격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6.5. 連用節의 多層構造

종속절의 계층은 2개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다만, 종속절 중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연용절만으로 다층의 계층구조를 구성할 경우, 4층 정도가 현실적인 문장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기본자료 중에서 4층의 구조를 가진 예는 없었다:

- [[[TV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밥부터 먹어라].
- [[[樣態節] 條件節] 理由節] 主節]

이미 논하였듯이 여기에는 명백한 계층구조(hierarchy)가 존재하여, 이들 樣態節, 條件節, 理由節의 포섭관계를 서로 바꿀 수는 없다.

접속형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는 “<하고>와 <해서>는 어떻게 다른가”, “<하니>와 <해서>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식으로 문제를 세워 왔고, 또한 當該 접속형을 기준으로 문장을 앞뒤 두 부분으로 나누고 전후를 균일한 자격으로 같은 층위 위에서 보아 <前件>과 <後件>, 또는 <前項>과 <後項>이라는 식으로 파악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같은 <하고>, 같은 <해서> 안에도 통사론적으로 완전히 달리 실현되는 몇 가지 유형들이 존재하며, 그 유형들은 구조 그 자체도 다르고 내부에 포섭하는 요소도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한 기능적인 유형과 계층구조를 시야에 넣고 접속형 연구, 종속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연체절 등 다른 절에 관해서도 같은 시각이 요구된다.

절의 종류, 접속형, 용언의 종류라는 세 가지 조건에는 분명히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절의 종류와 접속형에 따라 저절로 용언의 분포는 달라지므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접속형도 서로 바꾸어 놓을 수 없을 경우가 생기게 된다.

權在淑(1994a:94)은 접속형 <-아/-어> 즉 <해>와 <해서>에 공통되는 용언의 성격과 접속형이 나타내는 의미의 성격에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 표: 용언의 성격과 <해>, <해서>, <하니까>의 의미의 상관관계²³⁾

용언의 성격				<해>,<해서>의 의미	<하니까>의 의미
意志性	他動性	動作性	肯定性	先行性	契機性
非意志性	自動性	非動作性	否定性	原因·理由性	理由性

이는 절의 종류, 접속형, 용언의 종류라는 세 가지 조건에 명백한 상호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절의 기능이나 그것이 가져다 주는 문장의 계층구조와, 접속형의 선택, 그리고 용언이나 용언을 포함하는 단어결합의 <사태에 대한 명명기능>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이와 같이, 많은 접속형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경향을 각각 찾아낼 수 있다면, 문장의 계층구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계층구조를 이루는 큰 요소의 하나가 용언, 즉 단어의 총위, 그리고 용언을 중심으로 하는 단어결합의 총위에 미리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에 도달하는 것이다.

7. 문장 통합의 구조와 mood, modality

7.1. 종합적인 형식

이미 기존의 문법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용언의 종합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述語 내의 접미사(선어말어미)나 어미가 서로 결합하는 모습, 즉 相互承接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 動作命名—voice-존경—시제(과거,대과거)—非文末mood(將然判斷)—非文末mood(體驗)²⁴⁾—文末mood/待遇法

● 그 분을 피하려고 급하게 담 뒤로 숨었는데 옷 색깔이 야한 빨간 색이라서 아마 그 분 눈에 보이셨었겠더라고요.

23) 權在淑(1994a:94) 및 간노[菅野裕臣](1995:12-13)를 기초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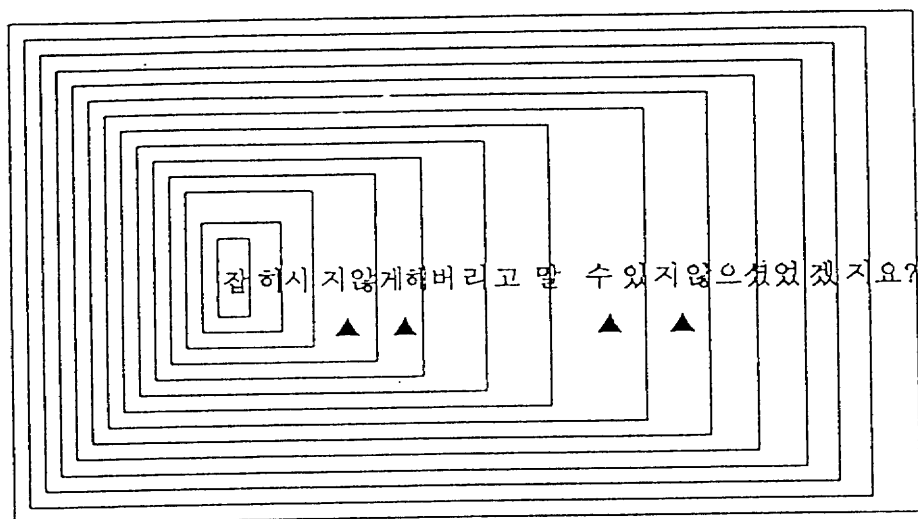
24) <하겠다>는 <將然判斷>의 mood를 나타내는 형식이다. 금방이라도 뒤흔칠 것 같다는 임박한 성격, 질박한 성격을 <將然>이라고 부른다. 노마[野間秀樹](1988:1,18-19,50) 참조. <하더라>는 <體驗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순접의 순서는, 대략 보다 객관적인 요소가 앞에 즉 내부에, 그리고 보다 주관적인 요소가 뒤에 즉 밖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7.2. 분석적인 형식

풍부한 분석적인 형식 역시 한국어에서는 述語 구성에 참획하고 있다. 종합적인 형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承接에 순서가 약간 자유로운 부분도 있으나, 이것 역시 일정한 承接順이 있음이 주목된다. 약간 형식적인 作例이긴 하지만, 하나의 개념적인 모델로서 다음과 같은 예로 확인해 보자:

● 표: 분석적인 형식의 承接順과 계층구조 모델



▲의 위치에는 限定語尾 <-는/-은>, <-도>가 삽입될 수 있다.

- 動作命名(잡다)-voice(수동:-히-)-尊敬(對動作主體:-시-)-否定-voice(使役)-決行(해 버리다)-決着(하고 말다)-可能(할 수 있다)-否定(反語)-尊敬(對使役主體)-時制(대과거:-았었-/-었었-)-非文末mood(將然判斷:-겠-)-文末mood(確認:-지-)-待遇法/疑問(-지요)

動作主體에 대한 존경은 사역의 앞에는 올 수 있으나 뒤에는 올 수 없다. 使役主體에 대한 존경은 사역의 직후와 시제의 직전 사이의 어디에서나 올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보여 준다. 또 하나의 예를 관찰해 보자:

- 간혀 있게 해 놔 버리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動作命名+voice(수동:갈히다)-aspect(해 있다)-使役(-게 하다)-準備(해 놓다)-決行(해 버리다)-希望(하고 싶다)-可能(할 수 있다)-添加(-도)-時制(-았-/있-)-非文末mood(蓋然推量:할 것이다)-文末mood/待遇法(한다)

위에 든 두 가지 예에서, 분석적인 형식에 있어서도 역시 객관적인 요소가 앞에 오고, 주관적인 요소가 뒤에 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확대절에 대한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구조는 단지 述語 내부의 계층구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분석적, 종합적 형식이 서로 결합되면서 어디까지나 문장 전체를 통합(integrate)하는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문장은 앞에 오는 범주를 뒤에 오는 범주가 감싸는 형식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는/-은>이나 <-도>와 같은 限定語尾(副語尾, 特殊助詞)에 의한 한정, 그리고 조정의 <-지 않->이나 <안>은 이들 계층구조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끼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들은 문장의 층위보다 더 높은 층위, 즉 발화의 층위에서 기능하는 요소라는 점에 연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는/-은>이나 <-도>에 대해서는, 문장을 단독으로만 취급하는 범위에서 벗어난, 텍스트(text)론적인 시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기다려진다.

7.3. 용언의 문법적인 형식의 承接順序와 계층구조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종 분석적인 형식의 상호순접 순서에 대한 고찰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상 논한 바를 전제로 하여, 용언의 종합적인 형식과 분석적인 형식의 순접순서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각 분석적인 형식이 授受, aspect, 시제, mood의 네 가지 형식의 앞에 오는가 뒤에 오는가에 따라서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다음 표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 표: 주요한 분석적인 형식, 종합적인 형식의 相互承接順序에 의한 階層分類
- *표 上段의 ▼의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 항의 각종 형식이 그 ▼ 앞뒤 어느 쪽에 오는가에 의해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하고 말다>는, 授受의 형식과의 순접은 <해 주고 말다>라는 순서가 되고, aspect 형식과의 순접 <하고 있고 말다>는 보통 사용되지 않으며, 시제접미사와의 순접은 <하고 말았다>의 순서가 됨을 나타낸다.
- ▼ 위치에 縱線이 없는 것은 그 형식이 보통 사용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 ▼ 위치의 縱線을 넘는 것, 예를 들어 <해야 하다>와 시제접미사와의 순접에 있어서는 <했어야 하다>와 <해야 했다>의 양쪽 순접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授受 aspect 時制 mood(將然判斷)
 <-아/-어 주-> <-고 있-> <-았-/-었-> <-겠->

1類 ▼ 2類 ▼ 3類 ▼ 4類 ▼ 5類

準備	해 놓다				
準備	해 두다				
試圖	해 보다				
試行	해 보이다				
來歷	해 오다				
結果	해 있다				
開始	하기 시작하다				
決行	해 버리다				
延展	해 가다				
授受	해 주다/드리다				
最高	하기 짝이 없다				
同然		하다시피 하다			
聯接		하고 있다			
決着		하고 말다			
經驗		한 적이 있다			
經驗		한 일이 있다			
途中			하는 중이다		
可能			할 수 있다		
轉成			하게 되다		
希望			하고 싶다		
意向			할 생각이다		
意向			할 작정이다		
豫定			할 예정이다		
一旦			하기는 하다		
當爲			하지 않으면 안 되다		
過去			했다		
約束			하기다		
比況			하는 듯하다		
斷定			하는 것이다		
放任			하면 되다	하면 되다	
許可			해도 되다	해도 되다	
當爲			해야 하다	해야 하다	
意思			할 터이다	할 터이다	
樣相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禁止				해서는 안 되다	
蓋然推量				할 것이다	
將然判斷				하겠다	
推量				하리라	
樣相				하는가 보다	
體驗					하더라

← 보다 객관성이 높은 형식
 ← 보다 명제에 가까운 형식

보다 주관성이 강한 형식 →
 보다 modal 한 형식 →

(주) <蓋然推量>을 나타내는 <할 것이다>에는 <했을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승접 이외에, 추량 그것 자체를 과거의 것으로 취급하는 <할 것이었다>라는 승접을 드물게 볼 수가 있으나, 소설에서는 李清俊, 金周榮, 복거일, 성석제, 이순원 등 일부 작가에 한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것이라고는 인정하기가 아직 어려울 것 같다. 노마[野間秀樹](1990a:23-25) 참조.

위의 표에서는, 왼쪽에 위치할수록 授受, aspect, 時制, 將然判斷의 mood의 각종 형식을 자기자신 뒤에 다양하게 수반할 수 있는 형식이며,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자기자신 뒤에 수반할 수 있는 형식이 적은 형식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왼쪽에 위치하는 형식일수록 보다 객관성이 강하고 명제 그 자체에 가까운 형식이며, 오른쪽에 위치하는 형식일수록 보다 주관성이 강하고 modal한 성격이 강한 형식이라는 점이다.

표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존경의 접미사(선어말어미) <-시->의 승접을 보면, 대개 1류에 속하는 그룹에서는 <하셔 놓다>보다는 <해 놓으시다>, <하셔 보다>보다는 <해 보시다>...라는 식으로 當該 형식 뒤에 붙는 경향이 강하지만, 2류, 3류의 그룹에서는 <하신 적이 있다>와 <한 적이 있으시다>, <하실 수 있다>와 <할 수 있으시다>처럼 당해 형식의 앞뒤 양쪽에 붙을 수 있다. 4류, 5류가 되면 종합적인 형식은 당해 형식 뒤에는 결코 붙지 않고, 분석적인 형식도 <하실 것 같다>, <하시면 되다>처럼 당해 형식 앞에 붙는 경향이 크고, <할 것 같으시다>나 <하면 되시다>처럼 뒤에 붙는 것은 아주 드물거나 부자연스럽다. 이처럼 존경의 접미사 <-시->는, 위의 표에서 좌측에 위치하는 형식일수록 그 형식 뒤에 오기 쉽고, 우측에 위치하는 형식일수록 그 형식 앞에 오기 쉽다는 경향을 보여 주는데, 이 점에서도 문법적인 형식 상호의 승접에 있어서의 계층성이 주목할 만하다.

7.4. <과거> 접미사(선어말어미)의 두 가지 기능

문법적인 제형식의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과거> 접미사 <(-아/-어)ㅁ-> (이하 <-었->으로 표기)가 當該 형식의 앞뒤 양쪽에 붙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할 것 같다>는 <했을 것 같다>와 <할 것 같았다>의 두 형식이 가능하다. 전자는 어떤 사태를 既存의 것으로, 혹은 과거의 것으로서 취급하면서 양상을 말하는 형식이고, 후자는 사태 자체는 未發의 것으로서 취급하면서 양상을 말하는 것 자체를 과거의 것으로 만드는 형식이다. 말하자면 <했을 것 같다>는 <過去取扱의 様相>이고 <할 것 같았다>는 <未發様相의 過去>이다. 같은 형태인 <-었->이 앞에 오는가 뒤에 오는가에 따라 결합된 분석적인 형식 전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기능적으로 보면 발화시와 관계된다고 하는 소위 <과거형>의 <있->은 분명히 후자의 것이라 해야 한다. <한다>에 대한 <했다>의 관계는 여기서는 <할 것 같다>에 대한 <할 것 같았다> 뿐이다. 즉 후자의 <있->은 <할 것 같다>는 양상의 진술을 과거의 것으로 만드는 소위 <과거>인 것이다. 그러면 전자의 <있->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겠다>에 대한 <했겠다>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같다. 거꾸로 말한다면 <하겠다>에는 과거형은 없다. <했겠다>는 사태 그 자체를 과거의 것으로서 취급하면서 추량적으로 어디까지나 발화의 현장에서,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형식이다. <했겠다>는 <過去取扱의 將然判斷>이라 하겠다. <하겠다>에는 <將然判斷> 그 자체를 과거의 것으로서 말하는 형식은 없다. <將然判斷의 過去>, 즉 <하졌었다>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했겠다>를 <하겠다>의 <과거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蓋然推量>의 형식 <할 것이다>에도 <과거형>은 없다. <추량의 과거>란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단지 <했을 것이다> 즉 <過去取扱의 推量>뿐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判斷>적인 mood나 <推量>적인 mood형식에 <과거>형은 없는 것이다. <判斷>이나 <추량>이라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발화의 현장에서 행해지는 爲이기 때문이다.

● 표: 접미사 <있->의 두 가지 기능²⁵⁾

	(事態에 대한) 過去取扱		(소위 發話時에 대한) 過去	
한다	—		했다	過去
할 것 같다	했을 것 같다	過去取扱의 様相	할 것 같았다	未發様相의 過去
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過去取扱의 推量	—	
하겠다	했겠다	過去取扱의 將然判斷	—	

분석적인 형식 전체를 하나의 형식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그 내부구조까지 검토해 보면, <있->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나는 전자, 즉 사태 그 자체를 과거의 것으로 취급하는 데에 참획하는 <있->이고, 또 하나는 발화의 현장에서의 시간관계 구성에 직접 참획하는 <있->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전자는 보다 명제구성에 가까운 <있->이며 후자는 상대적으로 발화의 현장, 화자의 태도, modal한 기능에 가까운 <있->이다.²⁶⁾

25) <할 것이었다>라는 형식에 대해서는 7.3. 표의 (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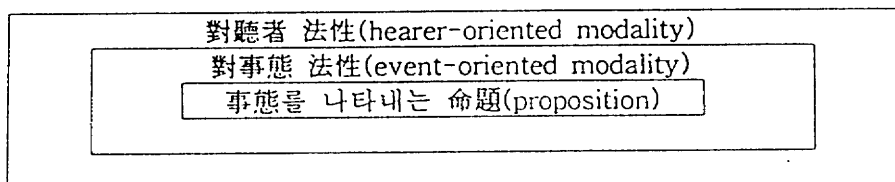
26) 시제(tense)론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發話時>를 <현재>, <과거> 등을 가리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시제는 결국 화자에 의한 사태의 파

이리하여 같은 <있>도 다른 문법형식과의 결합에 있어서 미세한 두 가지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述語内部의 미세한 계층화의 한 측면이다.

7.5. 명제, modality와 문장구조

이상 보아 온 바와 같이, 한국어의 문장은, 용언이나 필요에 따라 대격명사 등과의 단어결합에 의해서 <사태> 그 자체의 <核>을 명명하고, 핵이 되는 그러한 사태를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modal한 요소가 순서대로 감싸 간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태>와 가까운 요소일수록 대략 보다 객관적인 성격을 띠며 <사태>보다 먼 요소일수록 화자의 주관적인 성격이 짙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태>를 나타내는 언어형식은 <명제>(proposition)라 부르고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는 <법성>(modality)이라 불렀지만, 문장은 명제를 modality가 감싸는 구조, 포섭하는 구조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Modality에는 명제를 판단하는 <對事態 modality>와 듣는이에게 작용하는 <對聽者 modality>의 두 가지가 있다면, 문장구조에서는 對事態 modality가 보다 핵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對聽者 modality가 보다 핵보다 멀고 문말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 도표: 명제와 modality의 구조



이것은 述語의 종합적인 형식의 내부구조를 비롯하여, 述語의 분석적인 형식까

악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는 <發話時>와는 무관하다고 해야 한다. 실제로 <과거>나 어떠냐가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거>로 파악하느냐 어떠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 이걸로 이겼다!” - 이 발화는 실제로 “이겼는지” 어떤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화자가 사태를 기존의 것으로서 파악을 했다는 사실이 있을 뿐이다. <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화자가 실제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發話時>論은 언어를 현실의 反映으로 보는 사고방식에 위배된 논리라고 해야 한다. 非<發話時>論에 의한 시제론의 시도로서는 무라타[村田寬](1996a,b)가 있다.

지 포함한 상호승접구조, 더 나아가서 문장의 각종 성분의 소속의 구조, 종속절의 구조에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6. IN-marker와 OUT-marker

이미 논한 바와 같이, <-는/-은>은 양태절이나 조건절, 연체절에는 포섭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을 <-는/-은>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는/-은>은 말하자면 주제의 層位에 들어가는 marker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주제를 맡아 주제에 해결을 주면서 그 주제의 <말하고 말해지기>의 층에서 나가는 marker가 나타날 때까지 주제의 층에 머물고 있다는 긴장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當該 층위에 들어가는 marker를 여기서는 IN-marker, 당해 층에서 나가는 marker를 OUT-marker라고 부르기로 한다. 원칙적으로는 IN-marker는 OUT-marker를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면서>나 <하면>, 그리고 연체형(관형형)은 <-는/-은>의 층위의 OUT-marker로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다음 용례에서 ▷를 붙인 제형식은 OUT-marker로서는 기능하지 않음을 확인해 보자:

- 우리들은▲(IN-marker) 그림 속의 커다란▷ 젓가슴과 긴▷ 다리와 그 사이에 난▷ 머리칼과 모래 언덕처럼 솟아 있는▷ 엉덩이를 보고 있자면▷ 언제나 목이 말랐다▼(OUT-marker). <침묵/257>
- 대부분의 어른들은▲(IN-marker)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들은▷ 공산당에 관한▷ 얘기를 늘어놓으면▷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OUT-marker). <술래/231>

이러한 IN-marker와 OUT-marker의 대응은, 주제의 층위뿐만 아니라, 정도의 강약이 있지만, 문장 중의 많은 요소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문말의 述語의 계층구조는 文頭에서의 여러 가지 요소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述語내의 승접순에 비하면 술어 이외에서는 어순이 보다 자유로우나, 述語내에서 가장 밖에 나타나는 요소에 호응하는 요소가 文頭に 오기 쉽다는 큰 경향이 있다. 즉 개략적으로 말하면, 밖에 있는 것끼리 호응하면서 보다 안쪽에 있는 요소를 차례로 포섭해 나간다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그 각각에 IN과 OUT의 대응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 [아마 [그때 [박선생이 [김선생을 간혀 있]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선생을 간혀 있]
 [박선생이 ▲ IN 게 할 수 있 ▼ OUT]
 [그때 ▲ IN 었 ▼ OUT]
 [아마 ▲ IN 을 것이다 ▼ OUT]

본고에서 조사한 기본자료 13,889 문장 중에는 陳述副詞(문장부사) <아마>가 28번 출현하지만, 그 중 50%, 14例는 <할 것이다>라는 추량의 mood 형식으로 통합되는 문장이었다. <아마> 단독으로 문장이 종지하는 2례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가 <하리라>, <할 테다>, <할 것 같다> 등을 비롯한 화자의 추량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표에서는 3, 4류에 속하는 mood 형식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한다>, <했다> 등으로 끝을 맺는 예는 하나도 없었다. 용례수가 적어서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진술부사 <아마>는 추량적인 것을 나타내는 이러한 OUT-marker를 요구하는 비율이 극히 높은 부사일 거라고 추측된다.

또한, <그때>라는 상황어를 조사해 보면 99개의 예가 있는데, 그 중 94개, 94.9%가 과거접미사 즉 <-았-/-었->을 OUT-marker로서 가지고 있었다. 과거접미사가 없는 예는 5개뿐이고 그 중 하나는 <하데요>라는 體驗法에 대응하고 있다. <그때> 역시 일정한 OUT-marker를 요구하는 비율이 지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부사 <마치>는 33 예가 나타났는데, 그 중 18 개, 54.5%가 <-듯>, 10 개, 30.3%가 <-처럼>을 OUT-marker로서 가지고 있었다. 이 이외의 형식으로는 <마치>의 층위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음을 다음 예들이 잘 말해 준다:

- 그는 마치 ▲(IN-marker) 돈 없는▷ 주정뱅이가 어쩌다가 값싼▷ 술집을 발견하고도▷ 긴가민가하여▷ 자꾸 주머니 속의 가진▷ 돈을 헤아려 보듯이 ▼(OUT-marker) 문자가 과연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자기와 살아 줄 것인지를 알고자 끊임없이 탐색의 눈초리를 빈득였다. <민그대/18>

- 미선이 마치 ▲(IN-marker) 나를 아득한▷ 설화 시대의 인물로 간주하는 대신▷ 자기는 오히려 현장에 서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기라도 하듯 ▼(OUT-marker) 당당해 보였기 때문이다. <호박/32>

<비록>은 11 개로 예는 적지만, 역시 <하지만>이 7개, 기타 <했으나>, <하기는 하나>, <했을망정>을 OUT-marker로서 가지고 있었다. <다만> 30 개 중에서는 <했을 뿐>이 11 개, 기타 <하는 게 아니라>, <할 따름> 등이 눈에 띈다. 否定極語 <결코> 31개는 그 모두가 부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사 <꼭> 52例는 흥미로운 분포를 보여 준다. 크게 나누어서 양태부사의 <꼭>과, <의지>나 <比喩>, <당위> 등의 용언의 제형식과 호응하는 <꼭>이 있는 것이다. 전자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처럼, 한두 단어 뒤에 나타나는 동사를 수식하고, 후자는 더 떨어져 있는, 뒤에 나타나는 용언의 제형식과 호응하는 것도 많다:

● 나는 꼭▲(IN-marker) 누구랑 끊임없이 대결하는▷ 긴장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OUT-marker). <먼그대/25>

부사류가 보여 주는 이러한 대응관계는 단지 두 가지 요소가 호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이 문장의 내적 구조, 내적 계층구조 위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그러한 요소들이 각 층위에서의 출입을 명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진술부사, 의문부사, 부정극어는 물론, 평가부사(정도부사)나 시간부사 등, 여러 가지 부사에 대하여 이러한 호응관계에 관한 조사를 하면, 즉 각 IN-marker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 OUT-marker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대규모로 자세히 조사를 하면, 그리고 부사뿐만 아니라 문장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가 행해진다면, 한국어의 문장구조는 더 생생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²⁷⁾

8.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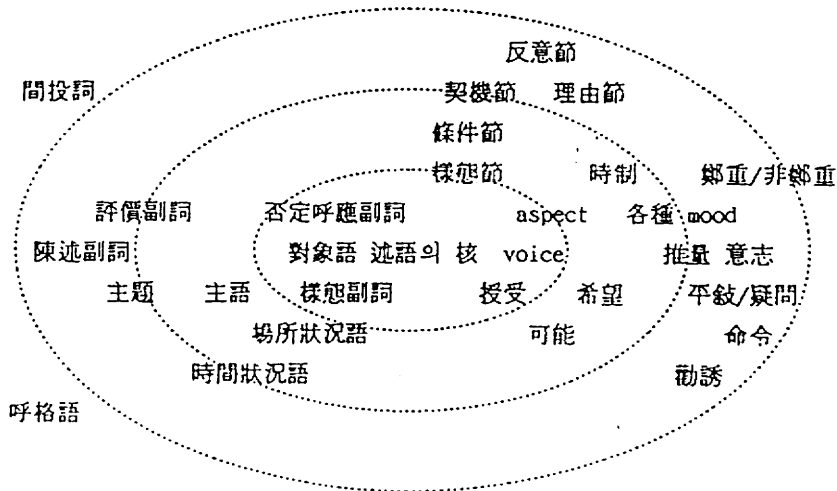
8.1. 문장의 계층구조

문장의 구조를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사태를 그려내기 위한 근본이 되는 부분, 즉 문장의 핵에는 용언의 어간이 서고, 핵에 가장 가까운 voice와 같은 요소는 용언어간에 가까운 위치에 서며, 對聽者 modality의 전형이라 할 鄭重/非鄭重이라는

27) 16세기 한국어의 말재어찌씨(陳述副詞)에 대해서는 서상규(1991)에서 문법적인 제요소와의 호응을 자세히 조사한 바가 있다. 호응을 “쌍방적인” “적극적 호응”과 “일방적인” “소극적 호응”으로 분류하여 출현빈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요소는 책에서 가장 먼 文末에 선다. 종속절 중에서도 사태의 기술에 직접 참여하는 양태절 같은 요소는 안쪽에, 조건절은 보다 밖에, 그리고 이유절과 같은 주관적인 성격이 짙은 절은 더 밖에 위치하는 것이다.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직접 나타내는 간투사나 호격성분과 같은 요소는 아예 문장 밖에서 독립성분이 된다. Modal한 성격이 짙은 진술부사는 책에서 먼 가장 외각 부분에 위치를 차지하고, 평가부사나 제목어는 그 다음 위치에 온다. 시간·장소의 상황어는 더 안쪽에,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는 책이 되는 <대격보어+述語>의 구조를 양태부사가 감싸고 있다:

● 도표: 문장의 계층구조 개념도



한국어의 문장구조는 이러한 proposition-modality의 구조, 혹은 dictum-modus의 구조에 비추어 봄으로써 더욱 깊이 해명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가능한 한 관념적인 조작이나 인위적인 사변을 피하면서 언어형식 그 자체에 나타난 언어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논하려고 힘써 보았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법형식에 대한 폭넓고도 세밀한 기술적 연구를 기대해 마지않는다.²⁸⁾

28) 본고에서는 일본어와의 대조에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본어에 있어서의 문장의 계층구조에 대해서는 미나미[南不二男](1974, 1991, 1993)가 선구적인 업적이다. 닛타[仁田義雄](1989, 1993)도 참조. 일본어와 한국어의 대조에 관해서는 노마[野間秀樹](校正中)에서 다루었다.

[謝辭] 본 연구에는 많은 분들의 힘을 입었으나, 高東吳 선생님, 李浩權 선생님, 이은섭 선생님, Richard Smith 선생님께는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리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가메이[龜井孝]·고노[河野六郎]·지노[千野榮一]編著(1989)「言語學大辭典 第2卷 世界言語編(中)」東京:三省堂.
- 가메이[龜井孝]·고노[河野六郎]·지노[千野榮一]編著(1996)「言語學大辭典 第6卷 術語編」東京:三省堂.
- 간노[菅野裕臣](1981)「朝鮮語の入門」東京:白水社.
- 간노[菅野裕臣](1982)「(複・重文の構成)朝鮮語」『講座日本語學11』東京:明治書院.
- 간노[菅野裕臣](1986)「朝鮮語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學習院大學言語共同研究所紀要』9號. 東京:學習院大學 言語共同研究所.
- 간노[菅野裕臣](1986-7)「中級講座」「基礎ハングル」1-12號. 東京:三修社.
- 간노[菅野裕臣](1988;1991)「文法概説」「コスモス朝和辭典」所收.
- 간노[菅野裕臣](1995)「朝鮮語語彙のクラスをめぐって」『朝鮮文化研究』第2號. 東京:東京大學 文學部 朝鮮文化研究室.
- 간노[菅野裕臣]외[早川嘉喜·志部昭平·浜田耕策·松原孝俊·野間秀樹·鹽田今日子·伊藤英人]共編, [金周源·徐尚揆·浜之上幸]協力(1988;1991²)「コスモス朝和辭典」東京:白水社.
- 간노[菅野裕臣]編譯(1990)「動詞アスペクトについて(I)」調査研究報告No.29. 東京: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 간노[菅野裕臣]編譯(1991)「動詞アスペクトについて(II)」調査研究報告No.35. 東京: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 고노[河野六郎](1979)「河野六郎著作集 第1卷 朝鮮語學論文集」東京:平凡社.
- 高永根(1989)「國語形態論研究」서울:서울大學校出版部.
- 고쿠고켄큐조[國立國語研究所](1985)「現代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とテンス」東京:秀英出版.
-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사전 연구실(1962)「조선말 사전」평양:과학원 출판사.
-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언어학 연구실(1963)「조선어문법 2」평양:과학원 출판사.
- 구노[久野暉](1973)「日本文法研究」東京:大修館書店.
- 구도[工藤眞由美](1992)「現代日本語の時間の從屬複文」『横浜國立大學紀要』No.39. 横浜:横浜國立大學.
- 구도[工藤眞由美](1993)「テンスとテンポラリティー」「日本語とアジア諸言語との對照的研究——テンスとアスペクト——」1991-1992年度 科學研究費報告書.
- 구로다[黒田成幸](1980)「文構造の比較」『日英語比較講座 第2卷 文法』東京:大修

館書店.

權在淑(1992)「現代朝鮮語の用言の接續形-니까について」『Lingua』第3號. 東京: 上智大學 一般外國語.

權在淑(1994a)「現代朝鮮語の用言の接續形Ⅲ (-아/-어) について」『Lingua』第5號. 東京: 上智大學 一般外國語.

權在淑(1994b)「現代朝鮮語の接續形Ⅲ-서について」『朝鮮學報』第152輯. 天理: 朝鮮學會.

권재일(1985)「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서울: 집문당.

권재일(1992)「한국어 통사론」서울: 민음사.

긴다이치(金田一春彦)編(1976)「日本語動詞のアспект」東京: むぎ書房.

김석득(1992)「우리말 형태론」서울: 탑출판사.

김영희(1987)「국어의 접속문」『국어생활』11.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김영희(1988)「등위 접속문의 통사 특성」『한글』제201·202호. 서울: 한글학회.

나카우(中右實)(1980)「文副詞の比較」『日英語比較講座 第2卷 文法』東京: 大修館書店.

남기심(1985)「접속어미와 부사형 어미」『말』10. 서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남기심(1993)「국어 조사의 용법——‘-에’와 ‘-로’를 중심으로——」서울: 서광학술자료사.

남기심·고영근(1985)「표준 국어문법론」서울: 탑출판사.

南基心·高永根·李翊燮編(1975)「現代國語文法」대구: 啓明大學校出版部.

남기심·루코프(1983)「論理的 形式으로서의 ‘-니까’ 구문과 ‘-어서’ 구문」『국어의 통사·의미론』서울: 탑출판사.

노마[野間秀樹](1988)「〈하겠다〉の研究——現代朝鮮語の用言のmood形式をめぐって」『朝鮮學報』第129輯. 天理: 朝鮮學會.

노마[野間秀樹](1990a)「〈할것이다〉の研究——再び現代朝鮮語の用言のmood形式をめぐって」『朝鮮學報』第134輯. 天理: 朝鮮學會.

노마[野間秀樹](1990b)「朝鮮語の名詞分類——語彙論·文法論のために」『朝鮮學報』第135輯. 天理: 朝鮮學會.

노마[野間秀樹](1991)「朝鮮語のオノマトベ——擬聲擬態語と派生·單語結合·シンタックス·テキストについて——」『學習院大學言語共同研究所紀要』第14號. 東京: 學習院大學 言語共同研究所.

노마[野間秀樹](1993a)「現代朝鮮語の對格と動詞の統辭論」『言語研究Ⅲ』東京: 東京外國語大學 語學研究所.

노마[野間秀樹](1993b)「現代韓國語의 接續形 <-다가>에 對하여 —— aspect·taxis·用言分類」『朝鮮學報』第149輯. 天理: 朝鮮學會.

노마[野間秀樹](1993c)「現代韓國語의 對格과 動詞의 統辭論」第20回 國語學會 共

同研究會 發表要旨.

노마[野間秀樹](1994a) 「현대 한국어의 連體形 <하던>과 <했던>에 대하여」 PACKS 제2차 한국학 한대평양 국제회의 발표요지.

노마[野間秀樹](1994b) 「現代朝鮮語の語彙分類の方法」 「言語研究IV」 東京: 東京外國語大學.

노마[野間秀樹](1995) 「朝鮮語の文の構造について」 國立國語研究所 公開研究發表會 發表要旨. 東京.

노마[野間秀樹](1996a) 「현대한국어의 대우법 체계」 「말」 제21집. 서울: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 한국어학당.

노마[野間秀樹](1996b)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의 현대한국어 문법론·어휘론 연구 —— 言語事實主義의 전개 ——」 「韓國文化」 18. 서울: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노마[野間秀樹](校正中) 「朝鮮語の文の構造について」 「國立國語研究所報告 日本語と外國語との對照研究 3 日本語と朝鮮語」 東京.

닛타[仁田義雄](1989) 「文の構造」 「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4 日本語の文法・文體(上)」 東京: 明治書院.

닛타[仁田義雄](1993) 「現代語の文法・文法論」 「日本語要説」 東京: ひつじ書房.

데라우라[寺村秀夫](1980) 「名詞修飾部の比較」 「日英語比較講座 第2卷 文法」 東京: 大修館書店.

데라우라[寺村秀夫](1982) 「日本語における單文, 複文認定の問題」 「講座日本語學 11」 東京: 明治書院.

데라우라[寺村秀夫](1993) 「寺村秀夫論文集 I —— 日本語文法編 ——」 東京: くろしお出版.

도키에다[時枝誠記](1941) 「國語學原論」 東京: 岩波書店.

마스오카[益岡隆志](1991) 「モダリティの文法」 東京: くろしお出版.

마스오카[益岡隆志]·다쿠보[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 東京: くろしお出版.

모리타[森田良行](1980) 「基礎日本語2」 東京: 角川書店.

무라키[村木新次郎](1991) 「日本語動詞の諸相」 東京: ひつじ書房.

무라타[村田寛](1996a) 「<했었다>形の研究——現代朝鮮語의 時間의 表現——」 第127回 朝鮮語研究會 發表要旨.

무라타[村田寛](1996b) 「<했었다>의 연구——현대한국어의 시간의 표현——」 「제23회 국어학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서울: 국어학회.

미나미[南不二男](1974) 「現代日本語の構造」 東京: 大修館書店.

미나미[南不二男](1991) 「現代日本語の從屬句についての小調査」 「日本語學」 12月

號. 東京: 明治書院.

미나미[南不二男](1993) 「現代日本語文法の輪郭」 東京: 大修館書店.

미즈타니[水谷静夫]編(1983) 「朝倉日本語新講座 3 文法と意味 I」 東京: 朝倉書店.

朴勝允(1990) 「機能文法論」 서울: 翰信文化社

서상규(1983)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의 범위」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서상규(1991) 「16세기 국어의 말재어저씨의 통사론적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徐尙揆(1993) 「현대 한국어의 시능말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연구——풀이말과의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朝鮮學報」第149輯. 天理: 朝鮮學會.

서정수(1983) 「{(있)던}에 관하여——시상적 기능을 중심으로——」 「국어의 통사·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서정수(1983) 「국어 구문론 연구」 서울: 탑출판사.

서정수(1988) 「‘더’는 회상의 기능을 지니는가——종결법과 인용법의 ‘더’를 중심으로——」 「꼭 읽어야 할 국어학 논문집」 서울: 集文堂.

서정수(1990) 「국어문법의 연구 I · II」 서울: 한국문화사.

서정수(1994) 「국어문법」 서울: 뿌리깊은나무.

徐泰龍(1979) 「內包와 接續」 「國語學」8. 서울: 國語學會.

성기철(1992) 「국어 어순 연구」 「한글」제218호. 서울: 한글학회.

쇼각칸[小學館]·金星出版社共同編集(油谷幸利·門脇誠一·松尾勇·高島淑郎編)
(1993) 「朝鮮語辭典」 東京: 小學館.

스즈키[鈴木重幸](1972;1982) 「日本語文法・形態論」 東京: むぎ書房.

시바[柴公也](1994) 「「~(으)면서」の意味と用法について」 「熊本學園大學 文學・言語學論集」第1卷 第1・2號. 熊本: 熊本學園大學.

시바[柴公也](1995) 「「-다 보니까」の意味と用法について」 「朝鮮學報」第155輯. 天理: 朝鮮學會.

시바타니[柴谷方良](1978) 「日本語の分析」 東京: 大修館書店.

시바타니[柴谷方良]외[影山太郎·田守育啓](1982) 「言語の構造——理論と分析——意味・統語編」 東京: くろしお出版.

申昌淳(1984) 「國語文法研究」 東京: 博英社.

쓰노다[角田太作](1991) 「世界の言語と日本語」 東京: くろしお出版.

안경화(1995) 「한국어 인용 구문의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安秉禧·李琬鎬(1990) 「中世國語文法論」 서울: 學研社.

야마다 사에[山田小枝](1984) 「アспект論」 東京: 三修社.

야마다 요시오[山田孝雄](1936) 「日本文法學概論」 東京: 寶文館.

- 梁鎭錫(1972) 「한국어의 접속화」 「語學研究」 第8卷 第2號. 서울: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南基心·高永根·李翊燮編(1975)에 再錄).
- 오고시[生越直樹](1987) 「日本語の接續助詞「て」と朝鮮語の連結語尾[a] [ko]」 「日本語教育」 第62號. 東京: 日本語教育學會.
- 오에[大江孝男](1972) 「用言語尾の意味と體系——現代朝鮮語の連用形語尾について」 「現代言語學」 東京: 三省堂.
- 오쿠다[奥田靖雄](1985) 「ことばの研究・序説」 東京: むぎ書房.
- 오쿠쓰[奥津敬一郎](1974) 「生成日本文法論」 東京: 大修館書店.
- 와타나베[渡邊實](1971) 「國語構文論」 東京: 塙書房.
- 왕문용·민현식(1994) 「국어 문법론의 이해」 서울: 개문사.
- 요시카와[吉川武時](1989) 「日本文法入門」 東京: アルク.
- 우메다[梅田博之](1989) 「朝鮮語」 가메이[龜井孝]·고노[河野六郎]·지노[千野榮一] 編著(1989)所收.
- 우메다[梅田博之]·무라사키[村崎恭子](1982) 「現代朝鮮語の文構造」 「講座日本語學10」 東京: 明治書院.
- 柳穆相(1985) 「連結敘述語尾研究」 서울: 集文堂.
- 이가라시[五十嵐周一](1996a) 「原因·理由を表す接續形 “-(아)서/-(어)서” と “-(으)니까” について」 東京: 東京外國語大學 卒業論文.
- 이가라시[五十嵐周一](1996b)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형 “-(아/어)서” 와 “-(으)니까”에 대하여——종속절의 포함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겨울학술대회 발표요지.
- 李琬鎬(1980) 「접속어미 “-면”의 의미기능과 그 상관성」 「언어」 5-2.
- 李基文(1961; 1972) 「國語史概說」 서울: 塔出版社.
- 이노우에[井上和子](1976) 「變形文法と日本語(上)」 東京: 大修館書店.
- 이노우에[井上和子]編(1989) 「日本文法小事典」 東京: 大修館書店.
- 이은섭(1996) 「현대 국어 부정문의 동사 구조」 「國語研究」 第140號. 서울: 國語研究會.
- 李翊燮·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서울: 學研社.
- 李廷玟(1975) 「국어의 補文化에 대하여」 「語學研究」 第11卷 第2號. 서울: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 이토[伊藤英人](1989) 「現代朝鮮語動詞의 非過去テンス形式의 用法について」 「朝鮮學報」 第131輯. 天理: 朝鮮學會.
- 이토[伊藤英人](1990) 「現代朝鮮語動詞의 過去テンス形式의 用法について(1)——했다形について」 「朝鮮學報」 第137輯. 天理: 朝鮮學會.
- 李弼永(1981) 「國語의 關係冠形節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第48號. 서울: 國語研

究會.

李弼永(1990) 「關係化」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主題別國語學研究史」 서울: 東亞出版社.

李賢熙(1990) 「補文化」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主題別國語學研究史」 서울: 東亞出版社.

李賢熙(1994) 「中世國語構文研究」 서울: 新丘文化社.

이흥배(1975) 「국어의 關係節化에 대하여」 「語學研究」 第11卷 第2號. 서울: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이흥식(1990) 「현대국어 관형절 연구」 「國語研究」 第98號. 서울: 國語研究會.

이희자(1994) 「국어의 '주제부/설명부' 구조 연구」 「國語學」 제24집. 서울: 國語學會.

任瑚彬·洪璟杓·張淑仁(1989) 「外國人のための韓國語文法」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任洪彬·張素媛(1995) 「國語文法論 I」 서울: 韓國放送通信大學校出版部.

張京姬(1985) 「現代國語의 樣態範疇 研究」 서울: 塔出版社.

장석진(1993) 「話用과 文法」 서울: 답출판사.

鄭玄淑(1996) 「現代朝鮮語의 接續形하고について<1>——意味と用法をめぐって——」 第128回 朝鮮語研究會 發表要旨.

조오현(1991) 「국어의 이유구문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趙義成(1994) 「現代朝鮮語の-에서格について」 「朝鮮學報」 第150輯. 天理: 朝鮮學會.

趙義成(1996) 「현대한국어의 단어결합에 대하여」 「제23회 국어학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서울: 국어학회.

지무라[千村哲也](1987) 「現代朝鮮語の格語尾[-로]について」 東京外國語大學 卒業論文

陳滿理子(1996a) 「現代朝鮮語の-로格について——單語結合論の観点から——」 「朝鮮學報」 第160輯. 天理: 朝鮮學會.

陳滿理子(1996b) 「현대한국어의 '-로'格에 대하여——單語結合論의 관점에서——」 「제23회 국어학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서울: 국어학회.

蔡琬(1986) 「國語 語順의 研究」 서울: 塔出版社.

崔東柱(1995) 「國語 時相體系의 通時的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 서울大學校 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최운갑·리세룡·편저(1984) 「조선어학사전」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崔在禧(1991) 「국어의 접속문 구성 연구」 서울: 답출판사.

최헌배(1937;1971)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하마노우에[浜之上幸](1991) 「現代朝鮮語動詞のアスペクト的クラス」 「朝鮮學報」 第138輯. 天理: 朝鮮學會.

하마노우에[浜之上幸](1992a) 「現代朝鮮語의 「結果相」 = 狀態パーフェクト——動

- 作パーフェクトとの對比を中心に——」『朝鮮學報』第142輯. 天理: 朝鮮學會.
- 하마노우에[浜之上幸](1992b) 「アспектとテキストの時間的構成について——時間
的局所限定性・タクシス性の観点から——」『朝鮮學報』第144輯. 天理: 朝
鮮學會.
- 韓南洙(1966) 「現代朝鮮語における格助詞-에게(-ege)について」 『言語の研究』むぎ
書房. (1976)所收
- 허웅(1983) 「국어학」 서울: 샘문화사.
- 洪在星(1982) 「“러” 연결어미문과 이동동사」 『語學研究』第18卷 第2號. 서울: 서
울大學校 語學研究所.
-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 연구」 서울: 탑출판사.
- Akademija nauk SSSR (1982) *Russkaja grammatika*. Tom.2. Moskva: Izdatel'stvo
Nauka (간노[菅野裕臣]抄譯(1990) 「ロシア語文法」東京外國語大學 講義資
料. 未公刊).
- Bally, Ch. (1932;1965) *Linguistique générale et linguistique française*. Berne: Francke.
(고바야시[小林英夫]譯(1970) 「一般言語學とフランス言語學」東京: 岩波書店).
- Bloomfield, L.(1933)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미야케[三宅
鴻]·히노[日野資純]譯(1965) 「言語」東京: 大修館書店).
- Bondarko, A.V.(1984) *Funkcional'naja grammatika*. Leningrad: Nauka.
- Bondarko, A.V.(1991) Translated by I.S.Chulaki. *Functional grammar: A Field
Approach*.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ybee, J.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omrie, B.(1976) *Aspec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llmore, C.J.(1975) *Toward a Modern Theory of Case and Other Articles*. (田中春美
·船城道雄譯(1975) 「格文法の原理——言語の意味と構造」三省堂.
- Jakobson, R.(1971) *Roman Jakobson Selected Writings*. II. The Hague: Mouton.
- Jakobson, R.(1990) Waugh, L.R. and Monville-Burstion, M.(ed.) *On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arceva, V.N.(red.)(1990) *Lingvisticheskij enciklopedicheskij slovar'*. Moskva: Sovetskaja
enciklopedija.
- Jespersen, J.O.H.(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 Kholodovich, A.A.(1954) *Ocherk grammatiki korejskogo jazyka*. Moskva: Izdatel'stvo
literatury na inostrannykh jazykakh.
- Kuno, S.(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The MIT Press.

- Lee, Hyun Bok (1989) *Korean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ukoff, F.(1993) *An Introductory Course in Korean*. Book 1-3.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Lyons, J.(1977) *Semantics*.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 S.E.(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Tokyo: Charles E.Tuttle Company.
- Maslov, Ju.S.(1978) *K osnovanijam sopostavitel'noj aspektologii*. Voprosy sopostavitel'noj aspektologii. Leningrad (간노[菅野裕臣]編譯(1991)所收).
- Mathesius, V. (1936;1964) On Some Problems of the Systematic Analysis of Grammar. In Vachek(1964).
- Palmer, F.R.(1979) *Modality and the English Modals*. London: Longman.
- Palmer, F.R.(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mstedt, G.J.(1939) *A Korean Grammar*. (= MSFOu 82).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 Shibatani, M.(1990) *The Languages of Jap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hn, Ho-min (1994) *Korean*. London: Routledge.
- Vachek, J.(ed.)(1964) *A Prague School Reader in Linguis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Vinogradov, V.V.(1975) O kategorii modal'nosti i modal'nykh slovakh v russkom jazyke. V.V.Vinogradov, *Izbrannye trudy: Issledovanija po russkoj grammatike*. Moskva: Izdatel'stvo Nauka.

●用例를 收集한 基本자료 * < >는 引用時의 약호

- 강석·김혜영編(1990) 「나의 신혼일기」 명서원 (手記) <신혼>
- 金承鈺(1986) 「김승옥 콩트집 햇벌과 민지의 놀이터」 산하 (小說) <햇벌>
- 김영현(1990 ; 1991) 「벌」 「李箱文學賞 受賞作品集14」文學思想社 (小說) <벌>
- 金周榮(1992) 「惡蠶」 「巨人을 찾아서」 예음 (小說) <惡蠶>
- 東京外國語大學朝鮮語學科研究室編(1991) 「朝鮮語視聽覺教材」東京外國語大學 (放送비디오 script) (이 中 「월세신부」 「비를 타고 오른 망둥이」 「장군 명군」 「광주는 말한다」 「김치」를 使用) <월세><망둥이><장군><광주><김치>
- 徐永恩(1983;1985) 「먼 그대」 「제 7 회 李箱文學賞受賞作品集」文學思想社出版部 (小說) <먼그대>
- 宋河春(1987) 「호박꽃 여름」 고려원 (小說) <호박>
- 양귀자(1987) 「원미동시인」 「원미동 사람들」文學과知性社 (小說) <원미>

- 양인자(1988) 「선비 풍토 문학선 1 비오는 날의 군것질」 선비 (小說) <군것>
 吳貞姬(1984;1985) 「순례자의 노래」 「제 8 회 李箱文學賞受賞作品集」文學思想社出版部 (小說) <순례자>
 오혜령(1990)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文學世界社 (戯曲) <왜>
 윤정모(1985) 「신발」黃皙暎·金正煥編「우리들의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80년대 대표 소설선 3」지양사 (小說) <신발>
 尹興吉(1983;1985) 「오늘의 運勢」 「제 7 회 李箱文學賞受賞作品集」文學思想社出版部 (小說) <오늘의>
 李東河(1989) 「果川에는 새가 많다」 「三鶴島」東亞 (小說) <果川>
 李文烈(1982;1985) 「匿名의 섬」 「제 6 회 李箱文學賞受賞作品集」文學思想社出版部 (小說) <匿名>
 李筍(1985) 「병어회-아들 2」黃皙暎·金正煥編「일과 사랑과 우리들의 공동체-80년대 대표 소설선 2」지양사 (小說) <병어회>
 李祭夏(1985;1986) 「소렌토에서」 「李祭夏小說集 龍」文學과知性社 (小說) <소렌토>
 李清俊(1987;1993) 「호르는 山」 「李箱文學賞 受賞作品集11」文學思想社 (小說) <호르는>
 林菊姬·禹鍾範編(1984) 「바구니에 가득찬 행복 3」文化放送 전예원 (手記) <바구니>
 全商國(1982;1985) 「술래 눈뜨다」 「제 6 회 李箱文學賞受賞作品集」文學思想社出版部 (小說) <술래>
 鄭昭盛(1988) 「王陵」 「뜨거운 江」東亞 (小說) <王陵>
 鄭然喜(1988) 「막차요, 막차」 「뽕」文學思想社 (小說) <막차>
 趙星基(1991) 「우리 시대의 소설가」 「李箱文學賞 수상작품집 15」文學思想社 (小說) <소설가>
 趙世熙(1983;1989) 「모독」 「趙世熙小說集 시간여행」文學과知性社 (小說) <모독>
 최해걸(1992) 「인간아!」 대성 (小說) <인간>
 韓水山(1987;1989) 「沈默」 「겨울숲」 도서 출판 東亞 (小說) <침묵>

●기본자료 이외의 인용자료

- 김종환(1996) 「존재의 이유」 「김종환」 1996.9.17. 제작 CD (歌詞) <존재>
 성석제(1996) 「첫사랑」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20」문학사상사 (小說) <첫사랑>
 윤승현 편(1996) 「서울박사」 다리 (實用書) <서울>
 이수진(1995) 「재즈섹스」 모아 (小說) <재즈>
 「이매진」 1996년 7월호 (창간호). 삼성출판사 (雜誌) <이매진>

< Abstract >

The hierarchy of sentences in the Korean language

Hideki NOM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structure of sentences in Korean.

Chapter 1 describe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 “linguistic-factism” — which is based on analysis of abundant linguistic facts. In concrete terms, the present research is based on investigation of 13,889 sentences collected from novels, dramas, broadcast scripts, etc. and linguistic data collected from native speakers.

In chapter 2, units of language such as text, utterance, sentence, *slovosochetanie* (word combination), word and morpheme are surveyed, and *modus* and modality are identified as necessary conditions for sentence-formation.

A sentence is seen as consisting of a “proposition” which expresses the event and “modality” which expresses the subjective attitude of the speaker. Modality is seen as consisting of “event-oriented modality” which expresses the speaker’s subjective attitude toward the event and “hearer-oriented modality” which expresses the speaker’s subjective attitude toward the hearer.

We can recognize *slovosochetanie*, a combination of words, as a unit which has the function of naming the matter in the sentence.

In Chapter 3, issues regarding subject and predicate are discussed. The nucleus of the sentence in Korean is the predicate. A subject and/or other components of sentences participate in forming sentences when necessary. The subject and other components except for the predicate are optional. In this point, Korean differs definitively from languages such as English and German in which a subject is indispensable in forming a sentence with a predicate.

Regarding predicates, there are two types of sentence: “predicate sentences”, which are integrated by a predicate, and “non-predicate sentences”, which are not integrated by a predicate.

Chapter 4 deals with the basic notions of sentence and clause. There are three types of clause: main clause, coordinate clause and subordinate clause. Subordinate

clauses may be divided into adverbial clause, nominal clause, quoted clause and adnominal clause. An adnominal clause always requires a noun, and is therefore weak in independence compared with other subordinate clauses.

Unlike coordinate clauses in English such as the structure "sentence + and + sentence", in Korean, only predicate sentences placed in parallel, i.e. in parataxis, are pure coordinate clauses. Clauses integrated by *hako* or *hamye* resemble adverbial clauses which are independent only in their meaning. The structure of such clauses is "sub-sentence + sentence".

In adnominal clauses only *-ka/-i* is used as subject marker, while *-nun/-un* is not used in general. However, *-nun/-un* can be used in cases where the marker expresses comparison or contrast.

The adnominal forms of adjectives contain an opposition of tense, for example "*alumtawu-n kkum*" vs. "*alumtawue-ssten kkum*", like adnominal clauses, and are therefore also seen as a kind of adnominal clause.

There are also expanded clauses which have their structure expanded by use of adnominal forms or nominal forms of verbs. Many expanded clauses are grammaticalized as mood forms of verbs.

In Chapter 5, the inner structure of clauses is investigated. It is noticeable that what kind of elements can be included in subordinate clauses depends not only on form but also on function and meaning.

"Manner clause", the smallest clause, cannot include sentence adverb, topic word, subject, *obstojachel'stovo* i.e. adverbial of time or place, negative polarity item, etc. Moreover manner clauses do not have oppositions of tense, therefore they may be called "pseudoclauses". Conditional clauses are larger than manner clauses, and can include subject. And reason clauses, concessive clauses, opposite clauses are even larger, in this order, and become progressively similar to the structure of main clauses.

The subcategories of verbs and the categories of *slovosochetanie* function as factors in determining the inner structure of clauses.

Chapter 6 discusses the hierarchy among clauses. Subordinate clauses differ according to what kind of subordinate clauses can be included mutually. For example, manner *hamyense*-clause can include a conditional *hamyen*-clause, but the reverse is not true. From this viewpoint, also, manner clause are the smallest, while opposite clauses are the most similar to main clauses. The multiple

structure of adverbial clauses is as follows:

[[[*TV-lul po-myense*] *pap-ul mek-u-myen*] *kenkang-ey an co-u-nikka*]
pap-puthe mek-e-la.]

[[[manner clause] conditional clause] reason clause] main clause]

Chapter 7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of integrating sentences and mood and modality. In predicates, not only synthetic forms but also analytic ones such as "*ha-ko iss-ta*", "*ha-ko siph-ta*", "*hay-ya toy-ta*", etc. are roughly determined in order of mutual joining and are ranked in a hierarchy.

From the viewpoint of the hierarchy, elements in the hearer-oriented modality, that is, relatively subjective elements, are ranked at the outside, that is, in the final part of the sentence, elements in event-oriented modality are graded in the next position and elements which contain the proposition, i.e. relatively objective elements, are placed in the innermost position in the sentence.

In the hierarchy there are various strata. For example, topic words with *-nun/-un* or adverbs function as markers which indicate where to enter a specific stratum. The marker indicating entry into a stratum is named "IN-marker", and the corresponding marker which indicates where to exit from the stratum is named "OUT-marker". The study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IN-markers and OUT-markers, such as "*ama: hal kesita*", "*kuttay: hayssta*", "*machi: hadus*", etc. is predi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tudy of syntax in future.

In conclusion, it is demonstrated that sentences in Korean form a hierarchy in the structure of proposition and modality.